

碩士學位論文

# 조선조 후기 서민가사 연구

지도교수 孫 五 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梁 秀 贊

2006年 8月

# 조선조 후기 서민가사 연구

指導教授 孫 五 圭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5월 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梁 秀 贊

梁秀贊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년 6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國文抄錄>

## 조선조 후기 서민가사 연구

梁 秀 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이 연구는 조선조 후기 서민가사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선 작업으로 서민가사에 드러난 서민들의 현실인식, 윤리 의식, 미의식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가사에 대한 연구는 양반가사 위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근래들어 서민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서민가사의 개념문제나 범주의 문제, 작자층의 문제 등에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 결과 가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중·고등학교 일선 현장에서도 서민가사에 대한 교육은 대표작으로 불리는 <우부가>나 <용부가> 등과 같은 두, 세 작품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가사 개별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고찰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기음노래>, <갑민가>, <우부가>, <노처녀가 I, II>, <과부가>, <용부가>, <백발가>, <양신화답가>, <오섬가>, <단장이별곡 II>, <합강정가>, <농부가 II>, <치산가>, <거사가>이다.

첫째, 서민가사의 개념을 검토할 것이다. 서민가사를 짓고 향유했던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개념은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식자층이 존재하기 힘들었던 서민 계층에서 기록문학을 향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과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차이점을 밝힌 후 기존 연구사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한 서민가사의 개념을 찾을 것이다.

-----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민들의 현실인식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조선 전기 사회를 튼튼히 지켜오던 성리학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본연의 모습을 잃고 도구 학문으로 변질되어 간다. 그리하여 나라 안과 밖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더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실학사상도 초기에는 사대부의 의식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현실의 삶을 중요시 여기던 서민의식과 부합되며 점차 서민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하여 서민가사를 포함한 조선 후기 서민문학 역시 실학 정신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민들의 현실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서민가사의 특징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작품 속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난 서민들의 사회윤리 의식을 고찰할 것이다. 서민가사가 주로 창작되던 시기는 임·병 양란 이후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특히 성리학이라고 하는 기존의 가치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실학이 성장하면서 서민들의 의식은 한걸음 성장하게 된다. 이에 서민들은 자성과 교화, 인간 본성의 추구, 인습의 타파 등을 통하여 어떠한 가치 체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윤리 의식의 회복을 꾀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서민들의 모습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잘 표현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 등장인물과 관련시켜 서민들의 사회윤리 의식의 모습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미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의식에서 美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아름다움과는 개념이 다르다. 일상의 아름다움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미의식은 개인적인 의식이 아닌 삶 전체와 관련된 미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삶을 공유하는 서민들이 느끼는 미의식은 양반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고 이는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고유한 특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민가사의 장르 규명 문제라든가 개별적 작품에 대한 구체적 접근 등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연구이지만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보완해가며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간다면 서민가사의 특징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개별 작품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목 차

### <國文抄錄>

I. 서론 -----	1
II. 서민 가사의 개념 검토 -----	7
1.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 -----	7
2.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 -----	9
3. 서민가사의 개념 -----	12
III. 실학정신과 현실인식 -----	16
1. 신분 계층적 갈등과 삶의 질곡 -----	18
2.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신분 변동 -----	27
3. 시대정신의 한계 극복과 서민 의식의 상승 -----	34
IV. 등장인물과 사회윤리 의식 -----	40
1. 자성적 교화와 수평적 비판 -----	41
2. 존재의 자각과 인간 본성의 추구 -----	47
3. 관능적 쾌락과 인습 타파 -----	51
V. 배경사상과 미의식 -----	56
1. 소망의 반영과 긍정적 인생 -----	58
2. 웃음의 여유와 고난 극복 -----	65
3. 새로운 경제관념과 삶의 이상 -----	72
VI. 결론 -----	76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4

## I. 서론

가사와 시조는 조선조 시가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이다. 이 중 가사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는 시조에 비해 그 성과가 미미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조에 대한 연구보다는 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가사에 대한 연구가 양반가사로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병 양란 이후 쓰여진 서민가사의 경우 작자층, 표현방법, 내용, 미의식 등이 조선 전기 양반가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이 서민가사의 개별적 작품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도 서민가사의 개념이나 범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 결과 가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학교 일선 현장에서도 양반가사에 대한 교육에 비하여 서민가사에 대한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sup>1)</sup>

여기서 문제는 양반가사에 대한 교육이 많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양반가사 중에는 미의식, 표현기교, 주제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수준을 보이는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작품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서민가사 중에서도 양반가사와는 다른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민가사의 개념과 범주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개별적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가 아직 중·고등 교육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문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민가사들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임으로 해서 독자에게 감명을 주고 쉽게 공감을 일으키게 한다. 충효와 같은 유교적 도덕이나 기존의 관념을 주로 대변하는 양반가사와는 아주 다른 작품 세계를 열고 있다. 양반들은 세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 이념 즉 타(他)의 선험(先驗)에 입각하여 관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양반가사

1) 고등학교 가사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서민가사는 「우부가」, 「용부가」, 「화전가」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송강을 중심으로 한 양반가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적 불균형이 나타난다.

는 생명력이 없는 관념의 시가 되었으나, 서민들은 세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성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서민가사는 생명이 넘쳐흐르는 개성적인 시가 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서민가사는 양반가사보다 문학적 가치가 훨씬 우수하다.<sup>2)</sup>

위의 논의는 다분히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특히 양반가사가 생명력이 없다면, 서민가사가 양반가사보다 문학적으로 훨씬 우수하다는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양반가사와 서민가사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하는 직접 비교는 서로가 가지는 많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인용문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인 인식과 표현을 근거로 서민가사의 문학적 우수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반가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서민가사의 우수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가사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다른 문학들에 비하여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서민가사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하여 당시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독자들이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여러신역 바친후에 시체찾아 장사하고  
사묘모셔 땅에묻고 애끓도록 통곡하니  
무지미물 못조작이 저도또한 설리운다  
막중변지 우리인생 나라백성 되어나서  
군사싫다 도망하면 화외민이 되려니와  
한몸에 여러신역 물다가 할새없어  
또금년 돌아오니 유리무정 하노매라

위의 인용문은 가혹한 군역의 폐해를 다룬 「갑민가」의 한 대목이다. 위의 작품에서는 현실 비판 문학에 주로 나타나는 풍자나 해학을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서민가사에는 주로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서민가사를 조선후기 가사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2) 金文基, 『庶民歌辭研究』, 螢雪出版社, 1983, p181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서민가사의 체계적인 연구에 앞서 그것의 문학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음노래>, <갑민가>, <우부가>, <노처녀가 I, II>, <과부가>, <용부가>, <白髮歌>, <양신화답가>, <단장이별곡 II>, <오섬가>, <합강정가>, <농부가 II>, <치산가>, <거사가> 등의 작품에 나타나는 서민들의 현실 인식과 윤리 의식, 미의식을 밝혀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민가사에 대한 개념 규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II장에서 서민과 서민가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조선 시대 신분제도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서민이라 불렸으며 그들의 사상과 의식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은 작품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고찰하고 기본적인 양·천제에 입각하여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신분제에서 서민의 범주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단, 여기서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과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범주는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서민가사의 개념을 밝힐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규정된 서민가사의 개념을 확인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구체적 작품을 통해 조선후기 현실을 실학 정신과 관련시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고찰하겠다. III장에서 다루게 될 작품들은 <기음노래>, <갑민가>, <우부가>, <노처녀가 I>, <과부가>이다.

<기음노래>의 화자는 농민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사를 매우 중요시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느 때도 농민을 천하의 근본으로 우대해 본 적이 없다. <기음노래>에 나타나는 화자 역시도 농사를 짓는 고통 속에서 관료들의 苛斂誅求로 인한 궁핍한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현실을 비판·고발하고 있는 농민이다.

한편 <갑민가>에 나타나는 화자도 군포를 징납해야 하는 신분이다. 더구나 <갑민가>의 화자는 본래 양반에서 신분이 몰락하여 군포를 징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그 비극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기음노래>와 <갑민가>를 통해서는 당시 농민 또는 학정에 시달렸던 신분으로 느꼈던 갈등과 삶의 질곡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우부가>에서는 18세기 이후의 양반 계층의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신분 변동을 고찰할

것이다. 18세기 이후 화폐가 유통되면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우부가>에서는 이러한 경제 현실 속에서 잘못된 소비 행태를 보이는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우부가>를 통해서 는 당시의 경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신분의 변동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처녀가 I>과 <과부가>에 등장하는 화자의 언행은 당시 가치관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이다. 이는 작품의 화자가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작품을 통해서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서민들의 현실 인식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IV장에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사회윤리 의식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단, IV장에서는 III장에서와는 다르게 사상적 측면을 배제할 것이다. 실학사상이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의식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성적 교화와 수평적 비판’, ‘존재의 자각과 인간 본성의 추구’, ‘관능적 쾌락과 인습 타파’라고 하는 세 가지 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작품들을 고찰할 것이다. IV장에서 다루어질 작품들은 <용부가>, <白髮歌>, <노처녀가 II>, <양신화답가>, <단장이별곡 II>, <오섬가>이다.

V장에서는 III, IV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작품을 통해 서민가사에 드러나는 미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의식에 대한 고찰 역시 배경 사상이 되었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V장에서 다룰 작품들은 <기음노래>, <갑민가>, <합강정가>, <농부가 II>, <치산가>, <용부가>, <노처녀가 II>, <거사가>, <우부가>이다.

그 동안 문학 작품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조동일은 모든 문학 작품의 미의식을 송고, 우아, 비장, 골계의 네가지로 나누어 보았다.<sup>3)</sup> 미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V장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반가사에 나타나는 미의식과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미의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미의식의 범주를 ‘소망의 반영과 긍정적인 인생’, ‘웃음의 여유와 고난 극복’, ‘새로운 경제관념과 삶의 질적 향상’의 세 가지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3) 조동일, 「美的範疇」, 『한국사상사대계 1』,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73

VI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보겠다.

이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서민가사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서민가사에 대한 몇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영은 “서민가사를 포함한 이조 후기 가사에 대하여 간결한 시형이나 고독한 자연의 노래보다는 생활 주변의 일상적 문제나 현실의 국면문제에 접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일 뿐 아니라 내용전달에 주력한 가사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4)</sup>

윤석창은 “서민가사는 표현이 유형화되어 있고 문학성이 사대부 가사보다 결여되어 있지만 서민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생경한 언어로나마 가식 없이 표현하였다는 데에 가사 문학상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5)</sup>

류연석은 “조선 후기로 오면 신분제도가 혼란을 일으키며 양반이 상민으로 전락하고 상민이 양반으로 승격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신분 이동의 격화가 조선 후기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의식이 예술계에도 침투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았다. 특히 “이 중 서민가사로 주목되는 작자 미상의 우부가, 농부가 등에서는 悖倫, 不義, 不善을 일삼는 악인을 풍자하는 그 비판정신 곧 대중적 희극미가 가미된 내용의 작품이 양산되어 기존 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sup>6)</sup>

김문기는 서민가사를 17세기 末葉에 實學사상과 서민의 각성을 배경으로 하여 대두된 가사문학의 한 갈래로 보았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유교적 이념을 주된 내용으로 하던 양반가사는 임·병 양란을 계기로 하여 차츰 세력이 약화되고, 반면에 양반 관료들의 수탈 대상이 되었던 서민들이 각성함에 따라 기존 질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는 서민가사가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정재호는 서민가사라는 용어대신 현실 비판 가사라는 말을 사용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모순에 찬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면서 강한 저항의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창작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의식의 단초는 17세기에 창작된 崔峴의 「龍蛇吟」과 같은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전란 이후의 사회상에 대한 비판적 현실 인식은 사대부들의 각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갑민가>, <거창

4) 이동영, 『歌辭文學論考』, 螢雪出版社, 1977

5) 윤석창, 『가사문학개론』, 깊은 샘, 1991

6) 류연석, 『가사 문학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7) 金文基, 앞의 책

가>, <合江停船遊歌> 등의 조선 후기 현실 비판 가사의 출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김학성은 “서민가사는 담당층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유형 성립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서민가사의 주류가 ‘현실적 모순의 폭로와 비판’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보았다. 또한 “기존 관념에의 도전과 인간 본능의 표출을 주제의식으로 하여 세계관적 변화를 보이는 작품들에서 서민들의 개방적 세계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정병욱은 평민 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평민 가사는 전기 가사의 미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여 이른바 희극미를 창조한 데에 특징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悖倫, 不義, 不善을 일삼는 악인을 풍자하는 그 비판 정신이 곧 평민 가사를 하나의 장르로 성립시키는데 충분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sup>10)</sup>

이상에서 서민가사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서민가사라는 장르는 개념상의 문제, 범주상의 문제, 작자층의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서민가사라는 용어 대신에 평민 가사, 현실 비판 가사, 서민화 지향 가사라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민가사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8) 정재호, 『한국 가사 문학 연구』, 태학사, 1996

9) 金學成,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10) 정병욱, 『한국 고전 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 II. 서민가사의 개념

### 1.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

조선 시대의 신분은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어 있다.<sup>11)</sup> 양인은 과거 응시와 관료 진출이 허용되는 자유민으로서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냈다. 양반과 중인, 상민이 이 계층에 속하였다.

이에 반하여 천인은 부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양반은 원래 文班과 武班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으나, 점차 관직을 가진 지배계층을 호칭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士族, 士大夫로 통칭하기도 하였다. 법제상 엄격히 말한다면 士는 五品 이하, 大夫는 四品 이상의 관리를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일반적으로 士大夫라 하면 양반계급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배층으로 형성된 양반의 성격을 보면 첫째, 교육과 학문을 독점한 지식 계급이요 둘째, 과거에 응시하여 文武의 관직을 독점한 관료계급이요, 셋째, 科田·祿俸 등으로 토지 또는 재물을 받고 이것을 세습·사유화함으로써 大地主로 변모하기도 하는 유산 계급이요, 넷째, 군역이나 부역 등 모든 役의 義務를 사실상 지지 않는 특권을 갖는 免役階級이라 할 수 있다.

중인은 특수한 기술을 지니고 실무직을 세습하는 계층이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雜科에 응시하여 그들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양반은 실무적인 기술학에는 종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술관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술학을 雜學이라, 기술관직을 雜織이라 했다. 그들 雜織은 세습되었으며, 중인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신분계층을 이루게 된 것은 그들이 서울 中央部에

11) 조선 시대 신분제도에 대하여 具滋均은 그의 저서인 『韓國平民文學史』에서 第一 宗親, 第二 國舅, 第三 駙馬, 第四 兩班(鄉班), 第五 中人, 第六 庶孽, 第七 胥吏, 第八 常民, 第九 賤民으로 세분화하였고(金文基, 「庶民歌辭研究」, 1983, p15 재인용), 金文基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하였다가 다시 양반과 서민으로 이대별하였다.

모여 살아서 中人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인 신분은 그 사회적 지위가 양반과 평민 사이에 놓여 있어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 지위가 고정되어 일반적으로 그 향상을 도모할 길은 막혀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기술관이나 文武의 하급관리들은 기술과 실무를 담당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차지하고 그 나름의 행세를 할 수도 있었다.

상민은 平民, 良民, 良人이라고도 부르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공장, 상인 등 생업의 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은 자유민인 까닭에 公民權을 가져 국가를 위해 주로 생산에 종사하며 軍役을 지고 租稅, 役, 貢納 등의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들 상민은 국가 또는 양반의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반을 조세로 바치며 16세 이상 60세까지의 丁男은 兵役과 賦役의 의무를 지고 立番해야 하며, 지방 특산물에 대한 現物稅로서의 貢物을 납부해야 하고 각종 노역에 종사해야 했다.

常民階級은 피지배 계급으로서 실질적으로 학문이나 학교 수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었으며, 이에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입신출세의 기회란 있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천인은 인간의 최하 대우마저 받지 못하는 계층, 즉 賤役に 종사하는 최하급의 특수계층이다. 그 중에 公私賤인 奴婢가 가장 많고 巫堂, 廣大, 娼妓, 白丁 등이 여기에 속한다.

奴婢는 예속의 양태에 따라 公奴婢와 私奴婢로 구분하고 이들은 人權이 없고 한낱 財產視하여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공노비는 有罪者로 官府에 속하는 奴婢이며, 이들은 官奴婢, 內奴婢, 寺奴婢, 驛奴婢 등으로 구분된다. 私奴婢는 개인에 속하는 노비로 私奴婢, 院奴婢, 校奴婢 등이 있다.

노비는 그 예속된 上典에게 일신의 일생뿐 아니라 세습해서 복역하는 것이 원칙이요, 그들의 고역을 참을 길 없어 도망했을 때는 엄중히 색출해서 처벌했다. 노비는 재산시하였고 타신분과의 결혼을 禁制하고 婢의 소생은 父의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노비가 되어야 한다.(奴婢從母法) 그리고 이들 노비에게는 軍역과 부역을 지우지 않는다.<sup>12)</sup>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조선 시대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어진

12) 國史教材編纂委員會 編, 『新 韓國史概說』, 螢雪出版社, 1988, p190~192

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민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계층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양반을 서민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생산계층이 아닌 소비 계층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몰락한 鄉村士族의 경우 서민과 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인계층이다. 그러나 중인 역시도 완전한 양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상민도 아닌 하나의 특수한 신분계층이기에 서민으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서민의 범주를 정하면 양반과 중인을 제외한 상민과 천민을 묶어 서민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민가사를 지은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범주 역시도 이러한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 2.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

아직까지 서민가사의 작자층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따라서 서민가사의 작자층을 밝히는 것은 서민가사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이며 지금부터 서민가사의 작자층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서민가사 작자층의 신분 계층은 당연히 서민이다. 다만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범주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의 범주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四書三經 더져쓰니 孔孟顏曾<sup>13)</sup> 그뉘알가 ……

뒋기쥬흔 勸酒歌<sup>14)</sup>는 將進酒<sup>15)</sup>로 和答호고

興趣도흔 襄陽歌<sup>16)</sup>는 白鷗打令<sup>17)</sup>으로 和答호고

13) 孔子(공자), 孟子(맹자), 顏回(안회), 曾參(증참)

14) 12 가사의 하나. 정철의 <將進酒辭>가 후대에 <勸酒歌>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음.

15) 정철의 <將進酒辭>.

16) 12 가사의 하나로 이백의 <襄陽歌>를 사설로 썼음.

17) 12 가사의 하나. 柳晩恭(유만공 : 1793~1869)의 『歲時風謠』 제 70수에 최초로 출현.

多情<sup>18</sup> 春眠曲<sup>18</sup>)은 相思別曲<sup>19</sup>)으로 和答<sup>18</sup>하고  
 閒暇<sup>18</sup> 處士歌<sup>20</sup>)는 漁夫詞<sup>21</sup>)로 和答<sup>18</sup>하고 ……  
 人生七十 古來稀<sup>22</sup>)는 옛사람의 일은비라 ……  
 三千甲子 東方朔<sup>23</sup>)은 滴下人間<sup>24</sup>) ㅎ단말가 ……  
 日居月諸<sup>25</sup>) 汲도록 늘글박게 ㅎ일없네 ……  
 蒼頡<sup>26</sup>)이 造字 ㅎ제 늘글노즈 ㅎ도안코  
 秦<sup>26</sup>)라 焚詩書<sup>27</sup>)의 타도안코 ㅎ마잇서  
 扁鵲<sup>28</sup>)의 神術노도 白髮還黑 못 ㅎ리라<sup>29</sup>)

위 작품은 지금까지 서민가사의 대표작으로 전해지던 <白髮歌>의 일부이다. 삶에 실패한 노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경계하여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두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 형식이기는 하지만 걸인 행색

- 
- 18) 12 가사의 하나. 李夏坤(이하곤 : 1677~1724)은, 『頭陀抄』, <南遊錄>(1722)에서 강진의 진사 이 회징이 만들었다고 했고, 洪翰周(홍한주 : 1798~1868)는 『智水拈筆』에서 숙종 때 교리 나학천이 만들었다고 했음.
- 19) 12 가사의 하나. 정철의 작품이라는 견해가 있음. 洪翰周(홍한주 : 1798~1868) 『智水拈筆』, 申光洙(신광수 : 1712~1775)의 <贈綠壁弟子月蟾>은 <상사별곡>을 소재로 한 시.
- 20) 12 가사의 하나. 이황 작이라는 견해가 있음. 洪翰周(홍한주 : 1798~1868) 『智水拈筆』
- 21) 12 가사의 하나. 이현보의 작으로, 12장으로 된 고려말의 <어부장가>를 9장으로 개작하였음. 12 가사로 부를 때에는 9장의 곡을 8장으로 축약하여 불렀음. 조선후기 '선유악정재(船遊樂呈才)'에서도 이 노래가 불렀음.
- 22) 두보의 시 <曲江>의 한 구절.
- 23) 중국 前漢의 문인. 자는 曼倩. 벼슬은 常侍郎. 太中大夫를 지냄.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삼천갑자를 살아 '삼천갑자동방삭'이라고 이름.
- 24)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유배됨.
- 25) '日居月諸(해여 달이여)'는 『詩經』, <周南>에서 나온 말인데, 居와 諸는 어조사임. 여기서는 세월이라는 뜻으로 쓰였음.
- 26) 중국 전설상의 황제의 신하로 새의 발자취에서 착상하여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
- 27) 焚書坑儒. 진시황이 즉위 34년에 학자들이 정치 비평을 금하기 위하여 민간의 의약, 卜筮, 種樹 이외의 서적을 모아서 불살라 버리고 다음해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 28) 전국 시대 鄭(정)나라 사람. 성은 진(秦), 이름은 월인(越人).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의 사장(舍長)이 되었다가 장상군(長桑君)을 만나 그의 의술을 전수 받고 오장(五臟)의 질병에 대해 통달하여 천하에 이름을 날렸음. 진나라 태의령(太醫令) 이일(李鑰)이 자신의 의술이 그만 못함을 알고 사람을 시켜 죽였음.
- 29) 鄭在皓, 『註解 草堂問答歌』, <白髮篇>, 박이정, 1996, p83~93

을 한 老翁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앞서 살폈던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의 범주에 적용시켜 이 작품의 작자층을 분석할 경우 문제점이 노출된다. 우선 인용문에 나타나는 경우만 살펴보기로 하자.

인용문에서 보이는 老翁의 신분은 양반임이 분명하다. 물론 그 행색을 보면 권세있는 양반은 아니고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에 의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다. 그리하여 그 老翁은 당시 서민 문화권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들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 예컨대 ‘四書三經’이라든가, <勸酒歌>, <將進酒辭> 등의 작품, 중국 유명 시인의 시 구절, 중국의 역대 인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이 <白髮歌>의 작가가 식자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폈던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의 범주에 적용시켜 본다면 <白髮歌>의 작가는 서민이 아니고 따라서 <白髮歌>를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것처럼 서민가사의 대표격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고순희의 견해를 살펴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潭陽府使 昌平縣監 姓生領舉 勤幹하다  
中貶마즌 羅州牧使 阿諂으로 와게신가  
名家後裔 南平縣監 追隨承風 무삼일고  
廻祖高風 矜각하면 貽羞山林 그지업다

나주목사는 中貶을 맞았다고 하였다. 감사는 매년 두 차례 지방관의 성적을 조사하여 등급을 정하는데 열 번 중 세 번이 中이면 파면된다. 그러니 이미 中을 맞은 적이 있는 나주목사는 적극적으로 아첨을 할 수밖에 없다. 남평현감은 명가의 후예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행동은 조상의 고아한 풍도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사항들을 볼 때, 작자는 인근 수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접하고 있었던 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인용문 외에도 고순희는 문체상 漢字 造語가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30)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 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p60~61

과거 제도와 현실적인 이해가 얽혀 있으면서 선비층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감사의 잔치가 國忌日에 벌어지고 있음을 내세워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작자는 이러한 왕족 행사도 익히 알고 있던 층이었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합강정가>의 작자층이 서민이 아니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은 현실적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白髮歌>와 <합강정가>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그들의 지적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서민가사로 보며 그 작자층을 서민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조선 후기 문학의 한 담당층으로 서민이 대두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때 등장하는 서민 문학이 구비 문학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창작·향유되고 있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범주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서민층에는 그 신분이 갖는 한계상 식자층이 포함되기 어려웠을 것이나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범주에는 그러한 식자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서민층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서민 의식' 또는 '서민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이렇듯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서민의 범주를 서민 의식을 가진 식자층까지 넓혀 볼 경우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 후기 문학의 한 담당층으로 서민이 대두한다는 사실은 부정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白髮歌>와 <합강정가>와 같은 가사 작품을 서민가사로 호칭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서민가사의 개념

서민가사란 서민들이 문학 담당층으로 대두하던 조선 후기에 나타난 가사 문학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민가사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그래서 서민가사의 현실 인식과 윤리의식, 미의식을 고찰하기에 앞서 서민가사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밝힌 후 이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김문기는 양반가사와 대립적인 측면에서 “서민이 짓거나 서민적 사고방식, 즉 서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가사”<sup>31)</sup>라고 서민가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은 서민 의식이다. 대다수의 서민가사가 작자를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민 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을 살펴보자.

양반적 사고의 특징이 관념적이고 인습적이라 한다면 서민적 사고의 특징은 현실적이고 경험적이다. 양반은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해하지 아니하고, 기존 관념 즉 도덕적 기준에 입각하여 인습적으로 수용하거나 이해하려고 한다. …… 이에 비해 피지배자의 입장에 있는 일반 서민들은 다양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사고하고 …… 그리고 양반적 사고가 논리적이고 획일적인 데 비해 서민적 사고는 상대적으로 다소 무질서하고 다양하다. 양반은 도덕과 법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여과해서 수용하므로 항상 논리정연하고 획일적이다. …… 이에 비해 서민적 사고는 현실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무질서하고 다양하여 …… 또한 양반적 사고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을 띠는데 비하여 서민적 사고는 진보적이며 개혁적 경향을 띠는 점이다. …… 양반의 사고는 긍정적이고 순응적이나 서민적 사고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sup>32)</sup>

위의 서민적 사고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서민가사에 대해 “중인 이하 양민 및 천민들이 직접 지어 향수했거나 서민의 현실적·경험적이고 진보적·개혁적이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어진 가사”<sup>33)</sup>라고 최종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서민가사라는 장르 설정에 관한 문제는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김학성은 서민가사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논의들을 요약하여 다

---

31) 金文基, 앞의 책, p14

32) 金文基, 앞의 책, p18~19

33) 金文基, 앞의 책, p19~20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4)</sup>

윤석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갑민가>, <노처녀가> 등을 '평민 가사'로 지칭하면서 그 작자층을 집권세력에서 제외된 한민한 양반 곧 잔반 또는 일정한 지식 수준을 지닌 중인 또는 평민으로 보았다.<sup>35)</sup> …… 윤미선은 '서민화 지향 가사'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작품에 드러나는 의식과 세계관이 서민화를 지향하며, 이를 작품에서 표현과 관련하여 서민 미학에 기반을 두고 형상화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로 범주화 한다<sup>36)</sup>고 했는데 …… 이전까지 서민가사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창가>나 <합강정가> 같은 현실 비판 가사의 작자층이 당대 현실에 비판적인 서민층이 아니라 '지방 하층 사족층'이라는 견해<sup>37)</sup>가 제출됨으로 해서 그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어 김대행에 의해 실제 가사 텍스트에 구현된 주제나 언어 운용 능력 향유의 시간적·경제적 여유 등으로 볼 때 양인이나 천인 같은 '서민'이 이런 소양과 능력을 갖춘 계층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중인계층'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는 견해<sup>38)</sup>가 나오기도 했다. …… 이런 의문점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강경호는 '서민가사'라는 용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의 모호성을 비판하고, 그 사상적 기반이나 내용적 특질에서 '서민성'에 근간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 작자성이 상실되고 다양한 이분을 파생하며 향유된 이들 텍스트가 시정-도시 문화권에서 일반 대중들로부터 대중성을 획득하여 향유된 '시정·대중적 성격의 가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서민가사의 실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sup>39)</sup>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서민가사라는 용어 자체나 그 작자층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서민가사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서민가사에 대한 여러 견해 중 김문기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서민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작자층이 분명히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서민적 사고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장

34) 金學成, 앞의 책, p181~182

35) 윤석산, 「平民歌辭研究 - 作者層을 중심으로」, 『한국학 논집』 16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9, p13~17

36) 윤미선, 「조선 후기 서민화 지향 가사의 운율적 변주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 p15

37) 고순희, 앞의 논문

38) 김대행, 「가사 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3집, 1998, p409~414

39) 康京浩, 앞의 논문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당시 서민이라고 하는 계층은 신분의 한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 따라서 문자로 가사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서민가사의 개념을 ‘서민들이 지은 가사’라고만 한정할 경우 문자로 쓰여진 가사는 서민가사로 볼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이에 신분은 서민보다 다소 높은 중인이 썼다하더라도 서민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졌다면 서민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민적 사고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피 지배 계층인 서민이라는 신분으로서 지배 계층인 양반이나 사회 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사고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그런 내용의 작품도 존재한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으로 서민들의 사고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오히려 그런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통해 현실을 개척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이런 사고가 표출되기 어려운 신분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민의 사고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데서 끝이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강경호는 “김문기의 양반적 사고와 서민적 사고에 대한 논의가 그 시기의 일반 서민들이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양반적 사고의 성향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이는 각 계층의 부분적인 면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해석·적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sup>40)</sup>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서민적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더 활발히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

40) 康京浩, 「서민가사의 실체성 연구」,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2, p7

### Ⅲ. 실학정신과 현실인식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출현으로 절정에 올라 있던 조선의 성리학은 조선을 뛰어난 인문 국가, 도덕 국가로 만들었으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성리학 자체가 본연의 건강성을 상실하고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한 도구 학문으로 변질되어, 국내외로부터 불어닥친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리학 자체를 도구 학문에서 개혁 지향적이고 진실한 학문으로 바꾸고, 아울러 전문 기술학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싹텄다. 이에 17세기 초의 서율 지식인들은 6경<sup>41)</sup>을 중심으로 한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이단을 포용하면서 修己治人の 실천적 성리학을 세우고 이를 ‘실학’이라고 불렀는데, 실학을 최초로 이론화시킨 인물은 이수광이었다.<sup>42)</sup>

이렇게 이수광이 이론화 시킨 실학은 이후 허목, 유형원, 이익 등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는 다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정약용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들 실학자들은 ‘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홍대용의 경우 身分을 기초로 한 수직적 ‘民’개념에서 職能을 기초로 한 수평적 ‘民’개념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士農工商은 身分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才能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약용은 ‘士’라고 하는 존재는 專門職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身分으로서의 ‘士’의 의미를否認하고 職業으로서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人格화된 ‘天’을 일반 ‘民’과 직결시켜 ‘天’이 ‘君’과 직결되고 ‘君’이 ‘天’을 대별하는 입장에서 ‘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天’이 ‘民’과 직결되고 따라서 ‘民’은 ‘天’과 직접 교섭하는 신성한 존재로 格上된다.<sup>43)</sup>

홍대용, 정약용 등의 이러한 주장은 비록 사대부의 의식이기는 하나 임진왜란 이후

---

41) 「시, 서, 역, 예기, 춘추, 주례」

42)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1998, p364~365

43) 金泳鎬, 「實學에 있어서의 ‘民’概念的 새로운 展開」, 『朝鮮後期文化 - 實學部門』,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1988, p42~46

사대부계층에 대하여 불만과 불신을 지니고 있던 서민들의 의식을 깨우기에 충분하였다. 현실을 중시하고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던 실학정신이 서민의 현실 인식과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홍대용, 정약용, 최한기 등은 인간 존재를 개별적이고 개체적이며 자주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앞서 ‘君’과 ‘民’을 동등한 존재로 파악하며 현 신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던 이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을 자연의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원리로 포섭하기보다는 상대적이며 주체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인간과 자연의 개별적 연계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sup>44)</sup>

실학 사상가들의 이러한 자주적 인간관은 서민들로 하여금 조선 전기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였으며, 이러한 서민들의 의식 상승이 조선 후기 서민 문학을 대두시킨 것이다. 따라서 서민 문학의 경우 실학이라는 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실학파의 문학관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 후기 서민 문학을 연구하는 데 앞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經世的 文學論과 自主的 文學論은 實學派 文學論의 한 특성으로서 文學을 통한 實學의 具顯, 즉 새로운 사회의 지향이다.

실학과 문학관의 특징의 하나는 現實과 乖離된 虛文假花같은 문학을 배격하고 인간과 현실의 문제를 문학에 수용하여야 한다는 經世的 文學論이다. ... 중략 ... 실학과 문학관의 또 다른 특성은 自主的 文學論이다. 조국과 민족,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母國語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 중략 ... 이러한 실학파의 문학관은 당시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오기 충분하였다. 虛文假花같은 生命力이 없는 문학, 현실을 떠나 吟諷詠月의 범주에 안주하면서 聲律과 對偶에 치중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자신들이 살던 사회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문학에 수용하면서 세상을 바로 잡고 구제하는 道具로서 문학의 위치를 끌어올렸다.<sup>45)</sup>

인용문에서도 보여지듯 실학과 문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과 민족이었다. 이러한 실학파의 문학관은 그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무엇보다 중요

44) 홍인식 외, 『실학사상과 근대성』,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1993, p33

45) 金相洪, 「實學派의 文學觀 一斑」, 『朝鮮後期文化 - 實學部門』,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1988, p49~57

시하던 서민들의 의식과 부합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사대부의 문학관이기는 하지만 서민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것은 서민가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민들의 현실 인식이 가사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 1. 신분 계층적 갈등과 삶의 질곡

조선 후기 서민가사에는 자신의 신분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고 피해를 보는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작품이 많다. 그 중 <기음노래>는 농촌에서 김멜 때 부르던 노래로써 농민의 이야기인 점에서 본다면 농부가류의 가사에 속하겠지만 단순히 농사 생활만을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비판류의 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의 농사짓는 모습과 바쁜 생활, 관리들의 수탈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신분이 농민임을 알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음노래>를 조선 후기 서민가사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기음노래>는 전체 4음보 67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1행에서 13행까지로 조선 시대의 신분을 四民(士, 農, 工, 商)으로 나누어 농민은 농사를 짓는 것이 고금의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부분은 14행에서 45행까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農家月令歌를 비롯한 농부가류의 가사와 자주 비교되는 부분이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46행에서 67행까지로 추수를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하는 곳에 불청객인 면주인이 오고 면주인으로 대표되는 말단 관리의 농민 수탈에 대한 농민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임금께 자신들의 사정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내용이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음노래>는 농민의 생활을 다룬 농부가류의 가사 작품이라 하여 정학유가 쓴 <農家月令歌>와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음노래>와 <農家月令歌>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ㄱ) 四月이라 孟夏되니 立夏小滿 節氣로다

비온끝에 벗이나니 日氣도 淸和하다  
떡갈잎 퍼질때에 버썩새 자로울고  
보리이삭 패어나니 꾀꼬리 소리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蠶農도 方長이라  
남너노소 汨沒하여 집에있을 틈이없어  
寂寞한 대사립을 綠陰에 단앗도다  
棉花를 많이가소 紡績의 근본이라  
수수동부 녹두참깨 부록을 적게하소  
갈꺾어 거름홀제 풀베어 섞어호소  
무논을 씨을이고 이른모 내어보세

ㄴ) 창경이 처엄울고 뽕뉘히 풀은적의  
동풍은 습습하고 세우는 몽몽흔디  
밧츠로 가자셔라 횡허잇썩 일흘셔라  
송아지 먹거나 늪은불셔 가는고나  
저녁거름 다넉간가 우리씨앗 난화가소  
압집보십 뒤집장기 선후를 닷들손가  
눅흔언덕 나즌이랑 츠레로 일훈후의  
고로로 썩여셔라 횡허뵈디 이슬세라  
이삭이 비록선들 갓고와야 아니되랴

ㄱ)에 인용된 대목은 <農家月令歌> 중 4월령에 해당하는 대목이고, ㄴ)에 인용된 대목은 <기음노래>의 한 대목이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만 보더라도 <農家月令歌>와 <기음노래>를 내용상 勸農의 가사로 묶어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農家月令歌>의 작가인 정학유는 다산 정약용의 아들이로서 비록 일평생 과거

를 보지는 않았으나 그 신분이 양반이었기에 본격적인 농사를 짓지 않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을 달에 따라 읊었을 뿐이고 또 절마다 다가오는 풍속과 지켜야 할 범절을 월령체 형식으로 노래하였을 뿐이다.<sup>46)</sup>

이에 반하여 <기음노래>의 경우는 <農家月令歌> 보다 현실적이다. 이는 곧 작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農家月令歌>처럼 세시풍속을 적은 부분은 없고 농민의 생활 그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음노래>의 창작목적이 <農家月令歌>처럼 농업적인 면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는 당시 농민의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데 있기에 <農家月令歌>와의 비교는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기음노래>를 세부분으로 나눈 것 중 농민들 스스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소박한 희망을 보여주었던 셋째 부분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선 후기에 농민이라는 신분으로서 느끼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같은 현실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 일단 <기음노래>가 쓰여 졌던 조선 후기 농민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조선 후기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정치의 문란을 가져왔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농민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많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댓가를 농민에게서 영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기구는 마치 관리들의 사재를 불리기 위한 협잡기관으로 변하여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리하여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田政, 軍政, 還穀의 소위 三政은 극도의 문란에 빠지게 되었다.

우선 田政은 토지의 結數를 기준으로 하여 받는 각종의 稅였다. 이 토지세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그 총계는 총 수확량의 10분의 1도 안 되었고, 이것은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세가 사실상 무거웠던 것은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게다가 관리들은 황폐한 陳田에서도 稅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白地徵稅라고들 하였다.

46) 徐元燮, 『韓國 歌辭의 文學的 研究』, 螢雪出版社, 1995, p262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세시풍속으로는 立夏, 小滿이 있고 농사와 관련해서는 면화, 수수, 녹두, 참깨, 모내기, 뽕따기 등이 나타난다.

軍政은 丁 1인에 대하여 軍布 1필씩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비록 균역법에 의하여 반감되었다고는 하지만, 布 1필은 米 6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1결에 대하여 부과하는 전세 4두보다 많은 양의 것이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黃口簽政, 白骨徵布, 族徵, 隣徵<sup>47)</sup> 등의 각종 협잡이 있어서 농민을 괴롭혔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곤란을 받기는 田政에 있어서 보다는 이 軍政의 경우가 더욱 심하였다.<sup>48)</sup>

還穀은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에게 국가의 미곡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1石에 대하여 10분의 1의 耗穀을 가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耗穀은 원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는 뜻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자의 구실을 하였다. 이리하여 빈민의 구제를 위한 還穀이 일종의 고리대로 변하여 그 폐해가 삼정 중에서도 가장 심하였다. 관리들은 필요 이상의 양을 강제로 勒貸하기도 하고, 反作이라 하여 출납 관계에 대한 허위의 보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虛留라 하여 창고에는 하나도 없으면서도 장부에는 있는 것같이 꾸미기도 하고 半白이니 分白이니 하여 받은 겨를 섞어서 1석을 2석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을 괴롭혔던 것이다.<sup>49)</sup>

이와 같은 현실이었으니 현실에 대한 농민의 불만은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불만들을 함부로 표출할 수 없었던 민중들은 문학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표출하였다. 그래서 <기음노래>에 역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환즈비즈 부세전령 응당구실 말라홀가  
 흐집의 세네군포 제구실도 못흐거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족무리 더욱설위  
 저너머 십여호가 어젯밤의 닳단말가

47) 黃口簽丁 : 장정이 되지 않은 황구를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 국법에서는 14세 이하의 소년은 군적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생후 3일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등록시켜 군포를 징수하곤 했다.

白骨徵布 : 吏胥들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하여 군적과 세부에 강제로 등록하여 군포를 징수하는 행위.

族徵, 隣徵 : 군역의 의무를 진 사람이 도망가면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군포를 이웃에게 징수하거나(隣徵), 친척에게 징수하도록(族徵) 했다.

48) 시기별로 보았을 때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田政의 부담이 가장 컸고,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軍政의 부담이 컸으며, 19세기에는 還穀의 부담이 가장 컸다.

49) 李基白, 『韓國史 新論』, 一朝閣, 1995, p325~326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기음노래>의 끝부분이다. 가혹한 군포를 이기지 못한 농민들 중 십여 가구가 지난 밤에 군포를 피해 도망가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망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族徵, 隣徵이라 하여 도망자의 친척 혹은 이웃이 그 군포를 책임져야 했기에 군포로 인한 고통은 끝이 없다. 이런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농민들이지만 그들이 이러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과 죽음 말고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봄, 여름, 가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추수하면 오히려 빚만 남는 악순환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현실이었다.

다음으로 <갑민가>는 조선 후기의 이른바 三政의 문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함남 갑산에 사는 한 백성이 양반 관료의 수탈에 희생되는 참혹한 경성과 그 流離民의 삶의 질곡을 그린 이른바 서민가사 또는 현실 비판 가사의 하나이다. 앞의 <기음노래>를 비롯한 대다수의 서민가사가 그러하듯 <갑민가> 역시도 그것이 지닌 社會批判意識에 의의가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갑산은 관북의 산악지대로서 농토가 적고 농업생산력이 미약해 생활이 궁박한 데다 지배질서가 취약하고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군역이 과중했던 곳이다. 그리하여 三政의 문란을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sup>50)</sup>

따라서 <갑민가>에서도 <기음노래>에서와 같은 현실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만큼 농민 또는 군포를 징납해야 하는 신분의 사람들은 당시의 현실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전토가장 진매하여 사십륙량 돈가지고  
파기소 찾아가니 종군파총 호령하되  
우리사또 분부내에 각초군의 제신역을  
돈피외에 받지말라 관령여차 지엄하니  
하릴없이 퇴하듯다 돈가지고 물러나와 ……

50) 김일렬, 「갑민가의 성격과 가치」, 『한국 고전 시가 작품론 2』, 白影 鄭炳昱 先生 10週年 追慕論文集 刊行委員會, 集文堂, 1992

노부모의 원형치장 팔승네필 두었더니  
팔랑돈을 빌어받고 달아다가 채워내니  
오십여량 되것고야

<갑민가>의 화자는 본래 양반가의 자손이었다. 그러다가 시기인의 참소로 유배를 가게 되고 자기 때에 이르러 원수인의 모해로 인하여 군포를 내야하는 처지에 이른다. 그 당시 당쟁에 희생되어 내쳐진 뒤 점차 향촌의 지배세력에서도 소외되어 군역을 부담하는 서민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노래의 내용은 <기음노래>에 비하여 더욱 처참하다. 당시의 군역이 지나치게 가혹해 친척들은 모두 도망가고 결국 13인분의 군역을 누대봉사 때문에 남아있는 화자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농사를 전폐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인삼을 캐다가 실패하고 백두산에 돈피를 구하러 갔다가 폭설을 만나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그리고는 결국 열 발가락을 잃고 돌아온다. 내려와서는 가지고 있던 전답과 세간살이 등을 모두 팔아 군포를 내려 하지만 돈피가 아니면 받지 말라는 명령에 돈피를 구하러 다니고 그 과정에서 아내마저 죽고 결국에는 노모를 모시고 군사도망 하는 등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서민이 지은 문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달픈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큰아이 다섯 살에 / 기병으로 등록하고  
세살된 작은 애도 / 군적에 적혔다네  
두아들 군포세로 / 돈 닳냥 물고나니  
죽기라도 원할판에 / 옷이란 다 무슨 말고? ……  
지난봄에 꾸어먹은 / 환자가 닳말이라  
올해엔 이짓하고도 / 살길이 막막하네  
무섭고도 두려울사 / 라졸놈이 또 안올가  
관가의 태형쫓은 / 걱정도 아니로세  
어허! 이런 집들이 / 온 천하에 수두룩하여라.

위의 시는 다산 정약용이 쓴 <적성촌의 시골집>이라는 작품의 한 대목이다. 정약용

의 경우 신분이 서민은 아니지만 이 시에서는 군포나 환곡 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특히나 인용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집들이 온 천하에 수두룩하다는 표현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한 두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전반적인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일부 부농을 제외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는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그 어떤 현실 타개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일 수 없었다. 물론 이들의 불만이 후대로 가면서 동학 농민 운동이라든가 각종 민란의 형태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좀더 후대의 일이고 <기음노래>를 비롯한 조선 후기 서민가사가 지어질 당시에는 그러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은 가사라는 문학 장르를 통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서 끝을 맺고 만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기음노래>와 <갑민가>의 끝부분에 드러난다.

뉘라셔 우리덩상 그려다가

구둥 궁궐의 님계신덕 드리리



(기음노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애민 북청원님 우리고을 빌리시면

군정도탄 그려다가 현폐상에 올리리라 (갑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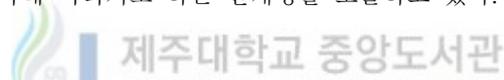
결국 현실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음노래>에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초를 임금께 알릴 그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음을 탄식하며 끝을 맺고 있다. 이는 곧 누군가가 임금께 알리어 임금께서 선정을 베푸시어 자신들을 구제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대의 현실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조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暗行御史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제 아무리 청렴결백한 관리가 暗行御史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현실을 바로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인식은 <갑민가>에서도 나타난다. <갑민가>에서는 부조리한 현실 자체

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북청 원님이 선정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저 그 원님처럼만 해달라고 글을 올리고 이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하자 북청으로 군사도망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다면 이렇듯 현실에 불만을 가졌던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김문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비판 정신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조를 지향치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 모순을 폭로하는 경우는 모순된 현실을 부분적,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할 뿐이요,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 개혁 운동으로 치닫지는 못하였다. 봉건 체제 및 사회 질서에 대한 부정과 저항 의식이 다소 내재되어 있기는 하나, 오히려 명실상부한 민본 이데올로기와 기존 체제의 이상적인 구현을 갈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학적인 방법으로 기존 관념을 파괴하고 현실에 도전하는 가사에서도 현실 개조를 위한 집념은 분명히 발견되나 혁신적 세계의 체시는 찾아 볼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 관념과 융화를 보이거나 삶을 포기하여 현실에 아예 굴복해 버리기도 하는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sup>51)</sup>



서민가사 문학에 나타나는 서민들의 현실 인식과 비판 정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순된 현실을 부분적,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할 뿐이요,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민 가사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한계는 서민들의 비판의식의 한계로 보기보다는 서민이라는 신분이 갖는 사회 현실적인 한계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쉬운 예로 박지원의 <허생전>의 경우를 보자.

박지원은 <허생전>의 후반부에서 주인공 허생과 실존인물인 이완 대장과의 대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이 때 허생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책을 알려달라는 이완의 말에 ‘인재 등용’, ‘몰락한 명나라 사람들과의 연합’, ‘청나라와의 교류’라는 아주 급진적인 세 가지 개혁안들 제시하며 북벌론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안은 실행이 될 수 없었고, 허생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다.

---

51) 金文基, 앞의 책, p139

이 때 허생이 제시한 세 가지 개혁안은 허생의 개혁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박지원의 생각했던 개혁안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사상이 실현되기에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다소 보수적이었기에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비판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양반 문학에서조차도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혁이 조심스러운데 서민 문학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민 문학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한계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신분상의 한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 서민들의 비판의식의 한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비판의식은 서민이라는 신분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대단히 진보적인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음노래>와 <갑민가>의 결말에서 공통적인 서민들의 현실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노래 내용 자체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만 항상 서민들의 의식 끝에는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기음노래>에서는 누군가 자신들의 처지를 임금께 아뢰어주기만 한다면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갑민가>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을의 원님이 북청 원님처럼만 해 준다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청으로 군사도망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비극적인 장면이지만 결국 북청만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화자가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기에 당시 서민들은 험난한 당시의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다.

이러한 소박한 희망은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정약용의 <적성촌의 시골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비록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작가의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 인식의 차이라 하겠다.

폐단과 어지러움 근원이 혼란하니  
공수, 환패 다시 온들 바로 잡기 어려우리.  
정협이 유민도를 넘지시 본받아서  
시 한 편에 그려내어 임금님께 바치리다

정약용은 서민 생활의 고통을 三政의 문란과 같은 근원에서 찾으려 했고 그 근원을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시를 지어 임금  
께 바친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기음노래>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임금께 알려 줄 사  
람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정약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약용의 해  
결책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약용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기음노래>의 화  
자가 바라던 소박한 희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상 <기음노래>와 <갑민가>를 중심으로 신분 계층적 갈등과 삶의 질곡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조선 후기의 서민들은 三政의 문란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실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  
는 신분상의 한계로 인하여 적극적인 현실타개책은 제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  
도 ‘언젠가는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진보적 비판의식을 보이고 있다.

## 2.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신분 변동



<우부가>는 다른 가사 작품에 비해 사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특히  
등장인물인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의 몰락 과정을 통해 인간의 반윤리적 행태 를 고  
발·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의 무분별한 소비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 모두가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인하여 몰  
락하였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그들이 그러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신분이었음을 의미한다. 작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자.

남존활량 기쑹이는 부모덕에 편이놓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야  
눈은눕고 손은커서 가량업시 주저넘어

위 대목은 <우부가> 첫 대목으로 개똥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똥이가 남촌에 살았다는 점<sup>52)</sup>, 부모 덕에 편히 놀고 있고 호의호식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개똥이의 신분이 양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똥이를 제외한 꿈생원과 썩생원의 신분은 어떠할까? 역시 작품을 통해 고찰하기로 하자.

저건너 꿈생원은 제아비의 덕분으로  
돈첩이나 가졌드니

꿈생원의 신분은 개똥이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꿈생원의 신분을 밝히는데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은 제 아버지의 덕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몰락하여 가난해지고 오히려 상공업이 발달하고 私商<sup>53)</sup>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분을 밝히기가 어렵다.

직상가의 청질허다 봉변하고 물너서고 ……  
딴종손 양반즈랑 산소나 파라볼까



이 대목에서 꿈생원의 신분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재상의 집안에 청질을 하러 출입을 한다든가 양반가의 큰 종손임을 자랑하고 산소를 팔아볼까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신분이 양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앞선 개똥이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다소 처진다.

산너머 썩생원은 그야말이 호우로다  
거드러서 한말즈랑 딴장부의 결기로다 ……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사랑이라

52) 양반들은 서울에 있어서는 그들의 거주지역을 만들어 北村과 南村이라고 모여 살면서 양반끼리 결혼을 한다.

53) 私商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화를 교역하고, 각 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으며 나아가 청, 일본과의 대외 무역에도 깊이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평생원의 신분은 앞선 두 사람에 비해 매우 불분명하다. 작품 내에서도 평생원의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호통을 친다든가 술집과 투전방을 제집 드나들 듯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아주 몰락하였지만 그 역시도 양반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부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은 모두 양반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sup>54)</sup> 다만 차이점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라든지 경제적 위치에 따라 같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 중, 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개똥이와 꿈생원, 평생원을 조선 후기 몰락 양반의 전형적인 인물로 보았을 때 양반의 경제적 몰락과 분화는 실제 현실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부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사 작품 또는 다른 문학 장르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음을 살펴보자.

ㄱ) 여보소 主人네야 乞客보고 웃지마소

젊어서 虛浪하면 이리되리 나뿐인가  
 나도본시 兩班으로 地體도 남만하고  
 세간도 남부럽지않고 인물도 잘났거니  
 四肢百體 성하오니 무슨일을 怯을낼까

- ㄴ) 양반이란 士族의 존칭이다. 旌善郡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했다. 언제나 군수가 새로 오면 반드시 친히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군의 환곡을 먹어서 해를 거듭하며 천 석에 이르렀다. 이 때 관찰사가 고을을 순행하다가 관곡의 출납부를 보고 크게 노해서 말하기를, “어떤 놈의 양반이 이렇게 군량을 축냈단 말인가?”하며 그 양반을 가두도록 명하였다. 군수는 마음 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그를 가두지 못하나 또한 어찌할 수 없었다. 양반이 낮이나 밤이나 울어도 피가 나지 않자, 그의 아내가 꾸짖었다.
- “평생에 당신은 글 읽기를 좋아했으나 관곡을 갚는 데는 소용이 없으니, 쫓쫓, 양반

54) 이에 반하여 정재호는 「愚夫歌考」(『註解 草堂問答歌』, 박이정, 1996)에서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의 신분을 각각 양반, 중인, 상민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주거지, 행위 묘사, 경제 형편 등을 들고 있다.

하더니 한 푼 값어치도 안 되는 구려.”

ㄱ)은 <우부가>와 함께 『초당문답가』에 실려 전하는 <白髮歌>이다. 어느 봄날 주인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白髮 老翁이 찾아온다. 이 때 白髮 老翁은 그 차림새가 걸인과 같으나 위에 대목에서 보면 이 늙은이 역시도 양반이었다. 그렇다면 이 노인 역시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 경제적으로 몰락한 조선 후기 양반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다.

ㄴ)은 박지원의 <양반전> 첫 대목을 해석해 놓은 것이다. 위에서도 보면 그 원인은 다르지만 우부가의 주인공처럼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양반이 등장한다. 그는 선비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글 읽기를 평생 동안 해왔지만 결국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종래에는 양반의 신분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을 맞는다.

이러한 양반의 경제적 몰락과 분화는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의 한 요소였다. 조선 후기에 광작과 도고 상업에 의해 부를 축적한 부농과 거상들이 균역을 모면하기 위하여 혹은 납속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여 양반이 되는 자들도 있었다. 또한 유생의 명부인 청금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학생을 사칭하기도 하고, 양반과의 혼인 또는 군공에 의하여 양반 신분을 얻는 경우도 생기는 등 양반의 수가 큰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반 계급 내에 복잡한 계층이 생겨났는데 위로는 집권 당파의 권세가 있는 벌열 양반이 있는가 하면, 향촌 사회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향반, 토반이 있고 또 그 아래는 향촌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층 양반인 잔반도 있었는데 잔반의 생활은 서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제가는 “대저 놀고 먹는 자는 나라의 큰 짐이다. 놀고먹는 자가 나날이 불어나는 것은 사족이 나날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 무리가 거의 온 나라 안에 퍼져있으니 한 가닥 과거와 벼슬만으로 이들을 다 엮어 뺄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sup>55)</sup>

지금까지 <우부가> 세 주인공의 신분과 관련지어 그들의 경제적 몰락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몰락을 해야만 했던 원인이 되는 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55) 姜明官, 「愚夫歌 研究」, 『韓國歌辭文學研究』, 태학사, 1996, p468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똥이, 꼼생원, 핑생원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라는 신분의 힘을 빌어 그들은 과도한 소비 생활을 하고 이러한 그들의 소비 생활이 몰락을 부추긴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미팔즈로 무상출입 미일장취 계트림과  
이리모야 노름놀이 저리모야 투전질에  
기싱첩 치가하고 ……  
허욕으로 장스허니 남의빚시 턱산이라 ……  
후혈데는 박허야서 한푼돈의 싹이나고  
박혈데는 후허야서 슈빅량이 헛것시라 ……  
병날노릇 모다허고 인습녹용 몸보키와  
쥬식잡기 모도허야 돈쥬정을 무진허네 ……  
전답파라 변돈쥬기 종을파라 월쥬주기  
구목버허 장스허기 서척파라 빚쥬기와 ……  
중손평계 위전파라 투전질이 싱이로다  
제스평계 제기파라 관즈구설 이러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개똥이가 다분히 소비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 초기의 양반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개똥이는 장사를 하기도 한다. 개똥이가 장사를 하는 모습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려는 조선 후기 양반들의 노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똥이의 이러한 행위는 장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단순히 허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남의빚시 턱산이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똥이의 소비생활은 그칠 줄 모르고 결국 대금업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도 당시 양반들이 처했던 상황과 경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18세기에 들어서서 대동미와 군포, 奴婢身賁이 금납화 되었고, 지대를 화폐로 지불하는 도전법이 실시되는 등 화폐의 사용이 일차적인 유통수단이 되면서 동전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로 인해 상인이나 지주들이 고리대업을 조장시켜 가난한 농민을 더욱 몰락시켰으며 관리들의 착취를 용이하게 하였다.

개똥이 역시도 이러한 고리대업에 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똥이는 고리대업의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산적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조선 후기 私商들이 해외 무역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사금융을 발달시켜 나가면서 자본을 쌓아 나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면 개똥이가 자본을 모으기 위하여 한 행동은 어떤 것들인가?

개똥이는 고리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반의 상징이랄 수 있는 서책이나 토지, 제기 등을 팔아 돈을 모은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리대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누구나가 고리대업에서 성공할 것을 기대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듯 <우부가>에서 보여지는 개똥이의 고리대업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개똥이가 고리대업을 행한 대상이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이었기에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빠른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개똥이는 자신이 했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서 번번이 실패를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똥이는 노름, 투전질, 주색 등의 소비생활을 이어나가고 이로 인하여 완전한 몰락을 맞는다.

꿈생원의 경제활동은 개똥이의 경제활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분히 소비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개똥이가 대금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려 한 반면에 꿈생원은 사기행각을 통해 그것을 영위하고자 한 차이점이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불리형세 씨그령이 위조문서 비리호송  
부즈나 후려볼가 감언리설 죄야보세  
엇막이며 모막이며 은점이며 금점이며  
티로변에 식주가며 노름판에 푼돈세기

조선 초기에는 광업을 국가가 경영하여 사적인 광산 경영을 막았으나 점차 사채를 허용하면서 세금을 받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금광과 은광 개발이 촉진되었다. 금광의 경우 주로 砂金鑛이 많아 전국의 연안과 하천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 곳에 금점을 두어 세금을 받아들였다. 또한 은광의 경우는 대청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나고 조총의 탄환 주조가 활발해지면서 개발이 활기를 띠어 매우 많은 은점이 설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채광이 행하여졌고 이를 틈타 꿈생원은 유망한

은광이나 금광이 있다며 자본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와 감언이설 등 그의 행위 대부분은 사기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선 개똥이와 마찬가지로 노름이나 투전과 같은 소비적인 생활을 이어나간다.

핑생원의 경우는 앞선 개똥이와 꿈생원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남의과부 겁탈허기 투장간곳 청병허기  
친척집에 소쓸기와 쥬먹다짐 일슈로다 ……  
투전군은 조화허며 손목잡고 술권허며 ……  
늘근부모 병든처자 손톱발톱 제처가며  
줍못자고 길습헌것 술너기로 장기두고

그는 투전방이 사랑일 정도로 투전에 골몰했다. 이는 앞의 개똥이와 꿈생원의 소비적인 생활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단 핑생원의 행위에는 어떤 생산적 활동도 없다. 오로지 주변 인물에 기생하여 노름과 투전을 일삼는 인물이다.

이상 개똥이, 꿈생원, 핑생원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당시의 경제 현실을 살펴보았다. 이 세 명의 주인공은 가지고 있는 금전적 여유나 몰락의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른 행위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노름과 투전으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곧 당시 현실에서 이런 노름과 투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자주 일어났고 작가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다음을 살펴보자.

세속에 이른바 投戔이란 것은 敗家之物의 으뜸가는 것이다. 그 해는 酒色보다 심한 것을 내가 이미 누차 언급한 바 있는데, 위로는 富貴之家로부터 아래로는 興儻 下賤에 이르기까지 貪惑하지 않음이 없다. 또 朝廷(廟堂)에서 주요한 國事를 의논하고 經幄에 출입하는 사람도 모두 풍속을 이루어, 심지어 投戔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세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으니, 심하다. 習俗이 쉽게 물들고 깨우치기 어려움이며, 투전의 폐단은 반드시 盜賊이 되고만 뒤에야 그칠 것이다. 대개 公私의 빛을 혹 능히 갚지 못하는 경우는 욕설과 독축이 갖추어 이르러 刑杖을 맞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견디지만, 투전의 빛에 이르러서는 갚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혹 갚지 못하면 입고있는 옷가지를 벗어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남을 속여 빛을 내며, 또 부족하면 그 집안을 속이고 집안의 물건을 훔쳐낸다. 이것이 반드시 도둑이 되는 까닭이다.<sup>56)</sup>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서 투전이 얼마나 성행했고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결국은 도둑이 되게 한다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투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던 개똥이, 꿈생원, 꿩생원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당연히 아주 철저히 몰락하게 된다. 이 세 인물을 통하여 교훈을 전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창작하였기에 그러한 결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도 모른다.

가련타 저인싱아 일쥌 걸직이라 (개똥이의 말로)  
부지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드리볼가 (꿈생원의 말로)  
포청귀신 되엇는지 듯도보도 못헐네라 (꿩생원의 말로)

세 인물의 말로 중 그나마 나은 것은 개똥이이다. 개똥이는 乞人이 되어 求乞을 다니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꿈생원과 꿩생원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게 처리하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지금까지 <우부가>를 통하여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로 인한 양반 신분의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신분 변동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발전한 실학은 양반 사대부라고 하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흐름을 변화시켜 놓았고 이로 인하여 조선 후기 사회는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개똥이와 꿈생원과 꿩생원으로 대표되는 몰락한 양반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무너져가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러한 모습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선 후기 경제 현실의 모습을 <우부가>는 잘 표현하고 있다.

### 3. 시대정신의 한계 극복과 서민 의식의 상승

조선조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는 양반

56)尹禧, 「家禁」, 『無名子集』, 成大 大東文化研究所, p445(姜明官, 「愚夫歌 研究」, 『韓國歌辭文學研究』, p472 재인용)

중심의 지배질서와 가족제도에 宗法사상이 응용되었다. 즉, 신분적으로는 양, 천의 규범을 엄격히 하고, 이에 따른 직역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유교의 가부장적 가족 원리가 점차 보편화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성별 간의 역할 분담도 뚜렷해졌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 문학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별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다룬 이야기들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고려 시대에 지어져서 구비 전승되던 고려 가요를 문자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男女相悅之詞라 하여 사장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민층이 문학의 한 담당층으로 대두하면서 기존의 양반 사회를 지탱해오던 유교적 가치관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또한 그와 동시에 성장하게 된 실학사상은 서민 문학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서민들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서민 문학에는 그동안 터부시되었던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다루거나 감정의 자유로운 발산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가사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다음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했다시피, 노처녀가 I, II는 명분의식과 인습적인 결혼제도를 비판하고, 현실 개조의 의지를 보이면서 비현실적인 삶을 실현하기도 한다. …… 과부가, 청춘과부곡, 단장이별곡, 관등가 등에는 再嫁금지라는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드러나 있다. …… 규수상사곡, 상사회답가, 송녀승가, 직송녀승가, 녀승직답스, 거사가, 이별곡, 양신화답가, 춘면곡 등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기존 관념과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고 자유 연애의 실현을 보여줌으로써 현실 개조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위와 같은 서민가사의 현실인식은 미래 지향적이다.<sup>57)</sup>

위 인용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 현실인식이라는 말은 곧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은 당시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유교적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거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은 당대의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시대정신의 한계 극복과 서민의식의 상승에 대하여 고찰

57) 金文基, 앞의 책

할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답답한 우리부모 가난한 줍냥반이  
냥반인체 된체하고 처스가 불민하여  
괴망을 일습으니 다만흔팔 늙어간다 ……  
어디서 손님오면 헝허는 줍미신가  
아희불너 힐문흔죽 풍헌약정 환향지축  
어디서 편지왔네 헝허는 청혼선가  
아희다려 무러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  
너귀에 듯는바는 늦길일도 호고만타

인용문은 조선 후기 서민가사 중 하나인 <노처녀가>의 일부이다. 나이든 노처녀 한 명이 나이가 들어서도 시집을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런 딸을 두고도 양반입네 행세하면서 방관만 하는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늦게라도 길일을 잡아 혼인을 하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다룬 문학 작품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물론 조선 시대 결혼제도 자체가 정략결혼과 같이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더욱 중시되었기 때문에 딸을 노처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다. 그리고 시집을 가지 못한 딸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을 속으로 삭이고 겉으로 표출하지 못했던 시대가 조선이었다. 물론 이러한 가치관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화자의 행위는 당시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처녀가>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노처녀의 문제는 18세기 후반 국가적 사안이었고 이런 문제에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실인식을 가미하여 창작된 작품이 바로 <노처녀가>라는 작품이다. 실제로 당시 노처녀에 대한 문제는 가사 작품 외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글을 제시한다.

조선시대 노처녀 문제는 언뜻 사회적 소수의 소외문제로 국한되었을 듯하지만, 조금만 유의해 살펴보면 ‘노처녀’ 문제가 엄연히 국가정책과 사회제도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된 사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국대전』은 ‘노처녀’ 문제에 대하여 “士族의 딸로서 나이 30이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간 사람이 있으면 禮曹에서 왕에게 아뢰어 資材를 지급하고 그 家長을 중죄로 다스린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목민심서』, 「에민 6조」, “振窮”에서 『경국대전』의 규정은 물론 ‘노처녀’에 대한 越王 句踐과 漢 惠帝의 명<sup>58)</sup>을 인거하면서 “과년토록 결혼을 못한 자는 官에서 마땅히 成婚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혼인을 장려하는 政事는 우리나라 역대 임금의 遺法이니 수령으로서 마땅히 성심껏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노처녀 문제 해결을 목민관의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sup>59)</sup> 실록 등에 영·정조대에 ‘노처녀’ 당론이 부각된 사실을 실제로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班家が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혼기를 놓친 노처녀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그 주요 원인일 것이다.<sup>60)</sup>

이처럼 <노처녀가>에는 노처녀 문제라고 하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작가의 현실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종전에 보여지던 서민 의식보다는 한 단계 상승된 서민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서민 의식의 상승된 모습은 <노처녀가> 외에도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동리할미 불너다가 옛말노 벗을슴아  
 밤식우즈 언약흐니 그할미 흥광흐야  
 청춘소년 빅발되면 다시정지 못흐리라  
 아모기네 맛솔아기 기가히서 편안흐지

58) 월왕 구천이 영을 내리기를 “여자 17세에 시집가지 않고, 남자 20세에 장가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다.”고 하였다. 한 해제 6년에 영을 내리기를 민간 여자로서 나이 30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벌금 五算(一算은 120냥이다.)을 물린다.“고 하였다.

59) 다산은 “옛날에 30에 아내를 취하고, 20에 시집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한계이다. 그러나 남자는 마땅히 25세로 마지막 한계를 정할 것이요, 옛 말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또 “고을 안의 남자 25세, 여자 20세 이상 된 자를 골라서 부모와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하여 성혼하도록 하되 태만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고 하여 노처녀 문제 해결을 수령의 직무로 직시하였던 바, 18세기 후반 당대 노처녀, 노도령에 대한 나이 인식이 여자 20세, 남자 25세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60) 성무경,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문화 담론 탐색』, 보고사, 2004, p181~182

늪은몸 즈되되여 토공선싱 못속인다  
세상스 싱각흐니 부부밧게 쏘잇는가  
이늪말슴 칙망말고 후일에는 디접흐리  
무정세월 여류흐여 옥빈홍안 절노늪네  
할미년에 부동으로 상설긋치 밷온마음  
븨눈갓치 푸러지고 암만히도 못참겠네<sup>61)</sup>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시대에 여자에게 강요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절이다. 한 명의 지아비를 섬기게 된 여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지아비만을 섬겨야했으며 이는 지아비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위의 작품은 수절이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도 인간의 본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과부가>이다.

<과부가>는 15세에 출가하여 혼례를 올린 지 보름 만에 남편을 여윈 청상과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혼자 사는 고뇌를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더불어 여자로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번민은 곧 개가를 감행한 이웃을 선망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할미년에 부동으로 상설긋치 밷온마음 븨눈갓치 푸러지고 암만히도 못참겠네”라고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결국 <과부가>의 화자는 개가금지와 수절이라는 봉건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른 삶을 살고자 한다. 이것은 앞의 <노처녀가>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실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을 의미한다. 결국 <과부가>에서도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서민 의식의 상승된 모습을 고찰할 수 있다.

이상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조선 후기 서민가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시대정신의 한계 극복과 서민 의식 상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우부가> 등의 작품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으로서 지냈던 사대부 의식과 그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V장에서 새로운 경제관념과 연관지어 자세히 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상승된 서민 의식

---

61) 金文基, 앞의 책, p85

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으며 혼란해진 유교적 가치관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결국 시대정신의 한계 극복과 서민 의식의 상승은 혼란해진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 했던 서민들의 현실 인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IV. 등장인물과 사회 윤리의식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가치 체계가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서민들은 성리학을 부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치 체계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문학 속에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실학의 성장이었다.

앞서 살핀 실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서민들은 피지배자로서 지배자에게 항상 통제당하고 제압당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실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기 전까지 서민들은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왔다. 결국 실학은 그런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성장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민들의 의식 또한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렇듯 실학사상에 의하여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자 성리학이니 실학이니 하는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들 스스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도 미약하나마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어떤 사상에 의해 짜여진 틀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차별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지내왔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성하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하여 지금부터는 서민가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보여지는 조선 후기 서민의 이러한 변화 모습을 고찰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자성적 교화와 수평적 비판’, ‘존재의 자각과 인간 본성의 추구’, ‘관능적 쾌락과 인습 타파’라고 하는 세 항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실학사상을 배제하고 서민들 스스로의 변화 모습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도록 하겠다.

## 1. 자성적 교화와 수평적 비판

그 동안 연구되어 온 많은 서민가사 중 <기음노래>, <갑민가>, <합강정가>, <거창가> 등과 같은 현실 비판류 가사에 나타나는 비판의 모습은 상당히 수직적이다. 즉 자신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 체제나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이는 실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실학의 영향으로 성장하게 된 서민들의 비판적인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서민가사에는 이러한 수직적인 비판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을 통해 경계를 삼고 윤리의식을 회복하려 했던 모습도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용부가>와 <白髮歌>를 들 수 있겠다.

우선 <용부가>의 경우를 살펴보자.

<용부가>는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켜 화자가 그녀들의 악행을 일일이 공개하고 비판함으로써 경계를 삼고 교훈을 전달하려 했던 작품이다.

이러한 <용부가>에 대한 다음 두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ㄱ) 그러나 이 작품의 실현화 방향은 것처럼 일방적일 수 없다. <우부가>의 경우처럼 이 또한 반응구조의 양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사대부층에게 있어서 ‘뺨덕어미’와 같은 유형의 인물은 유교적 윤리와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에 용납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그녀의 과격적인 행위 하나 하나는 경계하고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례에 불과할 뿐 그 이상 숨은 의미는 없는 것으로 수용될 것이다.

그렇지만 서민층의 경우 ‘뺨덕어미’의 존재는 사대부층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강요하는 규범에의 무조건적 순응 그것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도전하는 그리하여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수용될 것임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서민적 의식의 지향을 감안할 때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sup>62)</sup>

ㄴ) 간부달고 달아나는 것은 사회 풍조상 좋은 것은 아니다. 연인끼리 사랑의 도피는 인간 본연의 욕구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다. 봉건 체제의 유지와 사회 질서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볼

62) 金學成, 『國文學의 探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214~215

때는 심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양반 본위의 도덕적 규범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 선다면 큰 비난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용부가>는 뽕덕 어미의 용렬한 행위를 통하여 貞淑, 三綱五倫, 貞節, 安貧樂道와 같은 공허한 유교적 규범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다. 이리하여 경계하는 소리는 파괴와 도전의 소리로 역전된다.

결국 이 <용부가>도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이념을 부르짖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뽕덕 어미의 현실적 경험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열, 제시하여 유교 도덕의 당위성을 의심케 함으로써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 하겠다.<sup>63)</sup>

위 두 학자의 견해를 요약해보면 결국 <용부가>를 읽은 독자의 경우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나는 <용부가>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이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고찰하고, 다음 장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고찰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벌이고 있는가? 다음을 살펴보자. 단, 작품에 나타난 대로 ‘저 婦人’과 ‘뽕덕 어미’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표 1. ‘저 婦人’과 ‘뽕덕 어미’의 악행><sup>64)</sup>

저 婦人	뽕덕 어미
1. 시집간 지 사흘 만에 시집 흥을 봄	1. 무릎마침으로 싸움질하기
2. 시집살이를 못하겠다고 야단	2. 말전주하기
3. 시집에서 탈출 시도	3. 음식공론하기
- 치마 쓰고 내닫기, 붓짐 싸고 도망질하기, 僧을 따라가려 하기	4. 祖上은 모르고 佛供하기
4. 긴 長竹으로 들 구경하기	5. 무당·소경과 푸닥거리하기
5. 問卜으로 消日하기	6. 남편, 자식을 돌보지 않음
6. 半粉黛로 일삼기	7. 옛장사, 떡장사를 부름
7. 시부모에게 대들기	8. 물레 앞이나 씨아 앞에서 하품하고 기지개 켜기
8. 남편에게 맞닥수하기	9. 이간질하기
9. 팔자 고치려 하기	10. 음담패설 일삼기
10. 양반 자랑하며 색주가하려 하기	11. 謀陷하고 똥 먹이기

63) 金文基, 앞의 책, p84

64) 鄭在皓, 『註解 草堂問答歌』, 박이정, 1996, p29~30

	12. 치마가 짧아지고 허리통이 길어짐 13. 婚姻葬事에 음식 주심하기 14. 싸움에 대들어 남의 죄에 매 맞히기 15. 까담없이 성을 내며 아이를 두드리기 16. 머느리 쫓아내며 딸 자식 데려오기 17. 손뼉을 치며 放聲痛哭하기 18. 생트집에 머리 싸고 드러눕기 19. 姦夫달고 달아나기
--	---

<용부가>라는 단편 가사 속에 드러난 두 주인공의 악행은 매우 많다. 물론 이 중에는 굳이 악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을 제외하더라도 분명 두 주인공은 악행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어조는 두 주인공을 강하게 비판하는 어조일 수밖에 없다. 단, 이때의 비판은 현실 비판류 가사의 비판과는 차이가 있다. 현실 비판류 가사의 비판이 수직적 비판이라면 <용부가>의 비판은 수평적 비판이 된다. 즉 <용부가>에 나타나는 비판은 계층을 초월한 비판이요 자성인 것이다. 이는 <용부가> 두 주인공의 신분이 ‘저 婦人’의 경우는 양반가의 부인이고 ‘뽕덕 어미’의 경우는 상민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65)</sup>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비판이 곧바로 유교적 가치관 또는 지배질서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부가>에서의 비판은 어떤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 스스로의 비판과 반성, 즉 자성적 교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은 이를 통하여 사회 윤리의식의 회복을 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자성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 윤리의식의 회복은 조선 후기 계녀가류의 가사 변모 양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을 살펴보자.

딸아 딸아 연지딸아 고이고이 키워가주 남우집에 가거들랑  
 일가친숙 오시거든 말에말씀 조심하고

65) 두 주인공의 신분에 대해 鄭在晫는 男女奴僕과 양반 자랑, 色酒家 등을 근거로 ‘저 婦人’은 양반으로 보고 있고, ‘뽕덕 어미’의 경우는 본데없이 자라나서라든가 어미라고 하는 호칭을 근거로 상민으로 보고 있다.

지사영부 들거들랑 미들클 조심하고  
공우담을 잡거들랑 잔머리를 조심하고  
시아바시 상딜노면 처매꼬리 조심하고  
도리도리 수박탕개 밥담기를 조심하고  
중우벗은 시동상에 말에말삼 조심해라<sup>66)</sup>

위 인용문은 聞慶·榮州 지방에 전하는 계녀가사의 하나로서 양반 부녀자층의 전형적인 계녀가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양반 부녀자층의 전형적인 계녀가사가 三綱五倫, 七去之惡, 三從之道와 같은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위의 인용문은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결국 유교적 윤리의식의 회복이 아닌 스스로의 각성과 경계를 통해 현실을 풍자하며 보다 현실적인 윤리의식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용부가>와 의미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다음 <白髮歌>의 경우를 고찰해보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白髮歌>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乞人 행색을 하고 있는 老翁이다. 이 때 이 老翁의 신분은 양반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철저히 몰락한 양반이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자성적 교화의 내용이 나타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老翁의 모습은 단순히 몰락한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 인생의 노년기에서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서민들의 경우 처음부터 워낙 가진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몰락할 상황은 아니지만 인생의 노년기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계층의 구분이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白髮歌> 역시도 서민들의 자성적 교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行路上의 잠간만나 願一見之<sup>67)</sup> 츄즈쓰니  
或先或後<sup>68)</sup> 놀나가세

66) 權寧徹, 「閨房歌詞 研究」, 『효성여대 논문집 14집』, 1975, p126

67)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말

68) 앞서거니 뒤서거니

珠樓畫閣<sup>69)</sup> 곳곳마다 花朝月夕<sup>70)</sup> 석마초아  
 水陸眞饌<sup>71)</sup> 다가초아 香歌紫陌<sup>72)</sup> 눈일적에 ……  
 碌碌<sup>73)</sup> 혼 선비덜은 글을일거 무엇흐며  
 困困<sup>74)</sup> 혼 農夫들은 밧철가라 무엇흐노 ……  
 오날이 穉양으로 우리青春 限平生을  
 渠뉘아니 밋더슬가

위의 인용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老翁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하며 한 평생을 지낸다. 이는 앞 장에서 살폈던 <우부가>의 개똥이, 꿈생원, 핑생원과 같은 모습이다. 따라서 <白髮歌>에 등장하는 老翁의 말로 역시 <우부가>의 세 주인공과 같을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門前의 一老翁이 糧食달나 求乞<sup>75)</sup> 하니  
 衣服도 襤褸<sup>76)</sup> 하고 容貌도 憔悴하여 ……  
 정강이를 볼작시면 匕首劍 날이서고<sup>75)</sup>  
 팔다지를 들고보니 垂楊<sup>76)</sup>柯枝 흔들흔들  
 아리턱은 코을치고<sup>77)</sup> 무루곽은 귀을넘고<sup>78)</sup>  
 어린체를 흐라는지 코물쫓차 훌적훌적

老翁이 처음 초당의 주인을 만났을 때의 행색이다.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求乞을 하러 온 상황이기에 당연히 乞人의 행색이다. 이러한 乞人의 행색은 그 대상이

- 69) 단청을 아름답게 칠한 화각
- 70) ‘꽃이 핀 아침과 달 밝은 저녁’이란 뜻으로 경치가 가장 좋은 때를 이르는 말
- 71) 물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음식
- 72) 달콤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저자거리
- 73) 평범하고 보잘 것 없음
- 74) 몹시 고생스러움
- 75) 날이 날카로운 칼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말
- 76) 수양버들
- 77) 아래윗니가 모조리 빠져 입과 볼이 안으로 우르러져 함축한 모양을 과장한 표현
- 78) 노인이 흉물스럽게 양 무릎 사이로 얼굴을 놓고 쪼그려 앉는 모양

老翁이기에 더 큰 비극성을 주면서 경계와 자성의 효과를 높인다. 만약 주인공이 젊은이였다면 독자들은 동정의 목소리가 아닌 비난의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따라서 경계와 자성의 효과도 덜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계와 자성의 효과는 마지막 대목에서 老翁의 말을 통해 극대화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가소롭다 이늑몸이 헛노만 먹어스니  
엇그제 지닌일이 모도다 허시로다  
知覺나즈 늘거시니 後悔莫及<sup>79)</sup> 헛일업다  
이貌樣 보아스니 슬푸다 青春네들  
너逕常을 불작시면 그아니 무서운가  
光陰<sup>80)</sup>을 虛送말고 늘기전에 操心호쇼

위 인용문에서 老翁은 자기 자신을 거울삼아 지금의 젊은이들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계의 목소리를 낸다.

그렇다면 <白髮歌>에서 老翁이 몰락한 원인은 본인 자신이 젊은 시절을 헛되게 보낸 데 있는 것이지 유교적 질서 체제나 가치관을 어겨서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白髮歌>는 유교적 가치관이라든가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작품은 아니다. 오히려 작품 내에서 노인을 비하하는 모습 -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 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白髮歌>도 앞의 <용부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서민들의 자성적 교화와 비판을 통해 스스로 사회 윤리의식을 회복하려 했던 작품이다.

이상 <용부가>와 <白髮歌>를 통하여 자성적 교화와 수평적 비판을 통해 사회 윤리의식을 회복하려 했던 서민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용부가>와 <白髮歌>외에도 <우부가>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모습을 더 살필 수 있으나 <우부가>의 경우 <용부가>, <白髮歌>와 중복된 논의가 될 수 있고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79) 후회해도 소용없음

80) 세월, 시간

## 2. 존재의 자각과 인간 본성의 추구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도 하나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이었으나 조선조 신분제도에서 이는 용납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서민들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비단 서민뿐만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받았던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소외 계층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가사 속 등장인물이 자신의 존재 자각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작품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우선 『三說記』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노처녀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III장에서 제시한 <노처녀가>의 경우는 잡가에 실려 전해오는 것으로서 통상 <노처녀가 I>이라고 하며 지금부터 살필 <노처녀가>는 <노처녀가 II>라고 한다.

<노처녀가 II>에서도 <노처녀가 I>처럼 혼례를 치르고 싶어 하는 노처녀의 마음을 구구절절이 표현하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부모님도 야속하고 친척들도 무정하다  
너분시 돌지졸노 쓸티업다 흐려니와  
너나홀 헤여보니 오십줄의 드러고나  
먼저는 우리형님 십구세의 시집가고  
셋지의 아오년은 이십의 서방마즈  
티평으로 지너는티  
불상흔 이너몸은 엇지그리 이러흔고 ……  
너비록 병신이나 남과갓치 못홀소나 ……  
간슈먹고 죽즈흔들 목이쓰려 엇지먹고  
비상먹고 죽즈흔들 너음시를 엇지홀고 ……  
정신을 진정흐니 잠간사이 줌이온다  
평성의 틈친인연 오날밤 춘몽중의

혼인이 되거고나 .....  
 흥독기의 즈름미여 갓씩오고 옷넙히니  
 사름모양 거의갓다 .....  
 부모들도 의논호고 동싱들도 의논호여  
 김도령과 의혼호니 첫마디의 덕논고나

<노처녀가 II>의 화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대로 라면 <노처녀가 I>의 화자보다 결혼하기가 더 어려운 처지이다. 더군다나 <노처녀가 II>의 화자는 둘째 딸로서 언니와 동생이 모두 혼례를 치른 상황이라 혼례에 대한 갈망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꿈을 꺾도 혼례를 올리는 꿈을 꾸고 흥두께에다 옷을 입혀 신랑이라 하면서 혼례를 지내는 거동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결국에는 혼례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원인은 어디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노처녀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노처녀의 존재 자각이며 이는 작품에 잘 나타난다.



어와 너뭉미여 췌고도 분혼지고  
 이셔름을 어이호리  
 인간만스 셔룬중의 이너셔름 갓홀손가  
 셔룬말 호자호니 붓그럽기 충양업고  
 분혼말 호즈호니 가슴답답 기뵈알리 .....  
 부모님도 야속호고 진척들도 무정호라 .....  
 너셔방을 너갈회지 남다려 부탁홀가  
 너엇지 미련호여 이의스를 못너던고  
 만일발셔 췌쳐더면 이모양이 되여실가 .....

위의 인용문에서 노처녀는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처음 부분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혼례를 올리고 싶으나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서러움을 그 누구에게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단순히 속으로만 부모와 일가친척을 원망하고 만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의식의 결여로 일

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전형적인 조선 여성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처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중반부에 오면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왜 좀더 일찍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며 후회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존재 자각은 인간적인 본성에 충실한 노처녀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혼례는 나의 일이니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다짐한다든가 남 보기에는 창피하지만 흥두께로 인형을 만들어 혼례를 지내보는 등의 행동이 보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현실에서의 혼례를 성사시킨 것이다. 이것은 앞 장에서 살핀 <노처녀가 I>의 화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노처녀가 I>의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할 뿐 혼례를 성사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sup>81)</sup> 이 말은 곧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여 인간적인 본성에 충실한 <노처녀가 II>의 화자는 혼례에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노처녀가 I>의 화자는 혼례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조선 후기에 서민들과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자각에 의한 인간 본성의 회복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졌다.

한편 여성 화자가 남성에게 적극적인 구애의 모습을 보이는 작품도 있다. 이 역시도 <노처녀가 II>의 화자처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본성에 충실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양신화답가>는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연정을 주고받으며

81) 서영숙은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도서출판 역락, 2003)』에서 노처녀가 I, II의 화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노처녀가 I의 화자에 대해서는 “여성이 자신의 혼인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 현실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진취적인 사고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노처녀가 I의 한계이며, 당시 여성들의 인식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즉 개개인으로서의 여성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회 개조의 힘으로까지 전환시키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만다. 결국 ‘안짓다가 누엇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모진목숨 죽지못해 한이로다’(규 I 127면)하며 인식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으로 괴로워하고만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노처녀가 II의 화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고 개성적인 성격을 지닌 노처녀는 자신의 혼사를 더 이상 부모, 동생에게 맡겨 두지 않는다. 점을 쳐 자신의 신앙감을 결정한 후, 꿈속에서나마 혼인을 성취시킨다. ……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적극적으로 타결하는 노처녀는 더 이상 세계의 장벽에 좌절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즉 그녀는 세계와 맞부딪쳐 대결을 벌여 승리를 이끌어 내는 강인한 존재이다. 시집가기 전 여자는 부모의 처사에 순종해야 한다든지, 혼인은 부귀빈천이나 문벌 등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독립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래를 약속하는 노래이다.

총 166구로 이루어졌는데 첫 구로부터 62구까지는 여자가 남자에게 연정을 건네는 대목이고 63구부터 마지막 구까지는 남자가 답하는 대목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어제밤 너의거동 신선같은 양신이니  
서로앉아 반기는상 칠월칠석 은하수에  
견우직녀 상봉인듯 ……  
오금을 서로열어 수문수답 말삼하니  
재미롭고 쟁그럽다  
좋을시고 좋을시고 짝없이도 반가울사  
변치마오 변치마오 금일인정 변치마오  
그대몸 대감되고 이내몸 실기되야 ……  
오날밤 이저녁에 금석같은 이인정을  
변치마오 변치마오

위 인용문에서 사랑하는 님과의 만남을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여성 화자는 지금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화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다. 그리하여 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를 요구하며 대감의 실기가 되겠노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여성 화자가 자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존재 자각에서부터 기인한다. 즉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전형적인 조선의 여성 상에서 벗어나 좀 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던 것이다.

이상 <노처녀가 Ⅱ>와 <양신화답가>를 중심으로 존재 자각과 인간 본성의 추구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조선 전기에 소외되었던 서민들과 여성들은 조선 후기로 오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 서민가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 3. 관능적 쾌락과 인습타파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김문기는 “조선조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은 인간의 本然之性을 흐리게 하는 氣質之性의 발현으로서 윤리를 허물어뜨릴 위험한 요소로 간주되어 禁忌되고 죄악시되었기 때문이다.”<sup>82)</sup>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이 조선 후기에 허물어지면서 인간 본연의 욕구인 性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관능적인 쾌락을 표현한 작품들도 나타났다. 다음을 살펴보자.

오매불망 하든님을 생전다시 만났스니  
만사가 여의하야 이제주거 무한이라  
반갑기도 그지없고 전후설화 하노라니  
밤은벌서 야심하야 북두칠성 도라섯다  
나쁜정담 후일하고 어서맛비 누어차제  
원앙금침 펼쳐덜고 잣벼가 도도베고  
두몸이 한몸되어 을을겨워 노닐적에

죽은 님을 꿈에서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는 <단장이별곡 Ⅱ>의 한 대목이다. 사랑하는 님을 만나 그동안 못 나누었던 정담을 풀며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 못 나눈 얘기는 뒤로 하고 관능적인 사랑을 나누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性에 대한 개방적 인식은 서민가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문학에서도 드러난다. 다음을 살펴보자.

일러나 보자 일러나 보자 내 아니 이르라 네 남진한테  
거긔거스로 물기는 체하고 통은 내려서 우물전에 노코 또아리 벗어 통 손잡이에 걸고 건넌집  
작은 김서방을 눈짓해 불러내여 두 손목 마주 덤석쥐고 수근수근 말하다가 삼밭트로 들어가서

---

82) 金文基, 앞의 책, p88

프스일 하던지 잔삼도 빠러지고 굴근삼대 끝만 남아 우즐우즐 하더라 하고 내 아니 일르라. 네 남진한테 저아희 입이 보도라와 거긱말 마라스라.

우리는 마을 지어미와 실삼 조금 캐더니라.

위의 <단장이별곡 II>와 사설시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性의 적나라한 표현은 조선 후기 문학의 한 소재로 이용되었고 <단장이별곡 II> 외에 다른 서민가사 작품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性의 표현에 대하여 고미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성적 욕망과 열정의 참을 수 없는 분출은 사설시조가 이룩한 새로운 지평으로서 이것은 당대의 역사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조는 농민을 토지에 긴박시키는 경제외적 강제로서 유교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속박을 끊임없이 강제하여 왔다. 이것은 개체적 자유와 창조력을 억제하고 전일적 사유체제 안에 포섭시켜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에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17세기 이후 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따른 생산관계와의 모순이 가중됨에 따라 전일적 사유체제는 점차 틈새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문학에 광범하게 대두한 ‘애정’과 ‘성’의 분출’은 그 틈새를 비집고 솟아오르는 ‘개성 해방’이라는 운동적 질량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요컨대 사설시조가 구현한 건강한 분능과 치열한 열정은 중세적 베일을 뚫고 나오는 현실의 무기였고 민중의 변혁적 에너지를 담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미학 장치였던 것이다.<sup>83)</sup>

위의 고미숙의 글은 조선 후기 性의 표현에 대해서 사설시조와 관련시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고미숙의 논의는 비단 사설시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性이라는 소재를 다룬 작품은 서민 문학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서민가사에도 해당되는 말이며 이처럼 性에 대한 대담한 표현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관능적인 쾌락을 표현함으로써 조선시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존재하던 인습을 타파하려고 했던 서민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시 한 작품을 고찰해보자.

<오섬가>는 중국 역대의 지극한 사랑과 애틋한 이별의 사례를 까마귀 ‘금오’와 두

83)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p76~77

꺼비 ‘옥섬’의 문답식으로 엮은 서민가사이다.<sup>84)</sup> <오섬가>에서도 앞의 <단장이별곡 II>에서 보여졌던 남녀 간의 관능적인 사랑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ㄱ) 이부인 죽은후의 상스일념 간절하야

이쇼용을 청혀여서 괴의한 신통도술  
회뎡초를 품의품고 밤마다 꿈의 만나  
정회를 풀것마는 꿈곳씨면 허망이라  
잠영석을 구혀여서 니부인의 형형의  
몸갓치 밍그라서  
스장안의 너허늑코 주야의 상딤하야 ……  
보다가 발광하야 일어나 달여드러  
순쥐고 입맛초고 허허탄식 하는마리 ……  
발광하는 이거동을 윤부인 형부인이  
식암하야 흐는마리  
죽은첩만 싱각하소 산첩은 등한하니  
그솔은 못보것다  
투기하는 우는모양 그도또흔 우습도다



ㄴ) 조선국 남원부에 이도령 그아히가

춘향과 서로만나 스랑가로 노는모양 ……  
동방화축 김푼밤에 금금요석 펼쳐늑코  
저희두리 월신벗고 말동질도 하여보며  
턱견질도 하여보며 다리시름 하여보며  
니도령이 춘향안고 왼방안을 그딤면서  
손치질 푹푹치며 이라이라 이말식기  
춘향이는 외발늑쳐 이용이용 흐은작난 ……  
춘향이 도라안져 먼손보고 우는말이  
이게모도 뉘탓시오 도련임이 날쇼곶제  
넉가언제 도련임과 사즈사즈 합든잇ㄱ  
이달쇼 불췡흔게 춘향하나 췡이지요 ……

84) 金文基, 앞의 책, p91

공작왕손 벗임늬들 중안의 일등명기  
다모와 거나리고 습자비 그진풍유  
청그묘무 죠흔놀음 낙어망반 놀의시제  
하방에 천첩춘향 심각을 흐시깃쇼

인용문 ㄱ)은 한무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무제가 죽은 부인을 잊지 못하여 살아있는 윤부인과 형부인을 등한시하자 그녀들이 한무제를 투기하며 우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한무제는 죽은 부인을 꿈에서 만나 회포를 풀다가 꿈이 깨면 모든 것이 허망해지자 잠영석으로 죽은 부인의 형상을 만들어 관능적인 욕구를 분출한다. 이에 살아있는 윤부인과 형부인은 한무제를 투기하며 눈물을 보인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투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지아비에 대한 투기는 七去之惡<sup>85)</sup> 중 하나로서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었다. 이는 유교적인 관습으로써 서민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궁중 속에서도 지켜졌다. 실제로 성종의 계비인 폐비 윤씨는 투기가 심하여 쫓겨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섬가>에서는 이러한 유교적인 관습을 철저히 부정하여 윤부인과 현부인은 한무제가 죽은 첩만 생각하니 그 꼴은 못 보겠다며 눈물을 흘린다. 따라서 이 대목은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습을 타파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는 대목이다.

다음 인용문 ㄴ)은 우리나라의 고전인 <춘향전>의 한 대목을 실은 것이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김문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특히, 이도령과 춘향의 적나라한 性戲의 묘사와 배비장과 애랑간의 이별시의 猥褻 및 골생원의 裸身 묘사를 통해 性を 타부시하는 위선적 기존 관념과 정숙을 표방하는 유교적 도덕을 전면 부정하고 완전 전락시키는 데서 희극미가 표출되고 있다.<sup>86)</sup>

<오섬가> 역시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를 통해 기존의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인습을 타파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인용된 대목에서는 이도령과 춘향이 나누는 관능적

85) 조선 시대에 아녀자들이 행하여서는 안 되는 행동 일곱가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안 된다. 음탕한 짓을 해서 안 된다. 질투해서는 안 된다. 나쁜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 안 된다.

86) 金文基, 앞의 책, p177

인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별의 대목에서는 춘향이의 이도령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상 <단장이별곡 Ⅱ>와 <오섬가>를 통하여 조선 후기 서민 문학에 주로 나타나던 남녀 간의 관능적인 쾌락과 인습 타파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 항의 내용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시대정신의 한계 극복이나 인간 본성이 추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서민들은 등장인물을 통해 남녀 간의 관능적인 애정문제를 다루거나 인습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사회윤리 의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IV. 배경사상과 미의식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 사회의 문화 변동을 주도해 나갔고 이는 조선 후기 모든 예술 분야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우선 그림의 경우 18세기 중엽에 천기·진기주의 문학<sup>87)</sup>을 강조하던 김창업, 김창협, 김창흡의 후원을 받은 영조대의 謙齋 鄭澂이 眞景山水의 대가로 등장하였고 그의 뒤를 이어 檀園 金弘道와 蕙園 申潤福이 산수화와 풍속화의 새 경지를 열어 놓았다.

또한 공예 예술에서도 종전의 粉靑沙器가 자취를 감추고, 다종다양한 형태의 靑華白磁가 널리 유행하였고 나무 공예와 華角 공예도 발달하였다.

한편 문학에서도 실학사상의 영향은 컸다. 앞서 살핀 현실 인식 외에도 미의식의 측면에서 조선 후기 서민 문학은 전기 사대부 문학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전기 사대부 문학의 미의식이 자연과 그것을 통한 풍류와 흥을 중심으로 한 것<sup>88)</sup>이었다면 실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문학의 미의식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서민가사의 미의식 역시 현실을 배제하고는 고찰할 수가 없다.

이 장에서는 미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가사에 드러나는 미의식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우선 김학성은 미의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文學에 있어서 作家의 歷史意識과 社會意識을 문제 삼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럴 때 歷史意識이란 歷史에 대한 작가의 소박한 지식이나 인식이 아니며 또 社會意識이 社會에 대한 個人의 막연한 自覺意識이 아니듯이, 美意識은 作家의 單純한 感性的 認識이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 그리고 美意識에서 문제 삼는 美는 狹義의 美로서 the

87) 서울의 문단을 중심으로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표현하려 했던 문학

88)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39~40

자연의 사물이 이러한 자연사물형상의 결구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즉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을 때만 이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형식을 感得하고는 美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비로써 자연의 미가 발생하게 된다.

beautiful이 가리키는 偏狹한 概念이 아니라, 삶의 전체와 관련한 經驗에 直結된 것으로서 the aesthetic으로서의 廣義의 美를 意味하는 것이다. …… 모든 예술 작품에서의 美意識은 美的範疇의 표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sup>89)</sup>

결국 미의식에서 미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른 개념이고 미는 삶 전체를 통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의식 또한 한 작가의 개인적인 의식이 아닌 삶 전체와 관련된 미적 경험이므로 인생관과 경험의 차이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앞서 인용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의식은 미적 범주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미적 범주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sup>90)</sup>

이러한 미의식은 구자균이 언급한 것처럼 양반 문학과 서민 문학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대상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 생활방식 등이 서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 自然이라고 하는 대상은 양반들에게는 풍류와 사색이 될 수 있지만, 서민에게는 생활공간 그 자체가 된다. 따라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미의식 자체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서민가사에 나타난 미의식을 고찰하기 위해 ‘소망의 반영과 긍정적 인생’, ‘웃음의 여유와 고난 극복’, ‘새로운 경제관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미적 범주를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89) 金學成,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圓光大學校出版局, 1985, p25~26

90) 黃滄江 外,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p28~35

조윤제는 한국인의 생활 태도와 관련지어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로 미의식을 규정하였다. 다음 구자균은 양반 문학과 평민 문학으로 나누어 功業, 慨世, 頌祝, 懷古는 양반 문학의 미의식으로, 골계, 호색, 염정, 별한을 평민 문학의 미의식으로 들었다. 다음 조지훈은 국문학의 미의식을 우아와 비장, 관조의 셋으로 집단화 하였고, 신동욱은 송고미와 골계미, 감상미가 국문학의 미의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동일은 송고미와 우아미, 비장미와 골계미를 국문학의 미의식으로 보았다.

## 1. 소망의 반영과 긍정적 인생

흔히 서민가사의 특징을 거론할 때 언급되는 것이 현실 부정과 비판적 성격이다. 이는 당대 현실에서 서민이라는 계층이 갖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앞서 III장 현실인식 연구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생산계층인 서민은 소비계층인 양반에 의하여 지배되면서 갖은 핍박과 고초를 겪었다. 특히 三政의 문란과 같은 지배체제의 모순은 서민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서민들은 서민가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현실 비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작품으로는 이미 살핀 바 있는 <기음노래>, <갑민가> 외에도 <거창가>, <민원가>, <합강정가> 등 매우 많은 작품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서민가사들의 내용은 하나같이 현실을 부정하고 고발하는데 그치고 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서민가사 중에는 비록 지금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지금의 삶에 좀 더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띠는 서민가사들에서도 비록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모순만 해결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하고 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서민들의 낙관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서민들의 미의식의 표현이다.

이에 대하여 김문기는 이것은 서민들의 과거 지향적 현실인식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실적 부조리와 모순은 왕도 정치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며 유덕한 관료가 출현하면 이런 타락상은 곧 청산되고 바른 질서는 회복되리라 믿고 있다. 그리하여 부정적 현실의 타개를 임금에게 기대하거나 양심적 관료 또는 義士가 출현하여 현실적 고난을 해결해 주기를 希願하고 있다.

ㄱ) 충군애민 북청원님 우리고을 빌리시면  
군정도탄 그려다가 현폐상에 올리릴라

- 갑민가 -

ㄴ) 뉘라서 우리덩샹 그려다가  
구똥 궁궐의 님계신덕 드리리

- 기음노래 -

ㄷ) 비나이다 비나이다 上帝님께 비나이다  
우리聖上 仁愛心이 明觀燭불 되게하사

- 합강정가 -91)

ㄱ)과 ㄴ)의 <갑민가>와 <기음노래>는 Ⅲ장 현실인식 연구 중 신분 계층적 갈등과 삶의 질곡 향에서 잠시 언급했던 대목이고 ㄷ)은 <합강정가>의 한 대목이다. <합강정가>는 전라감사 정민시가 觀風察俗한다는 명분 아래 호화스런 뱃놀이로 백성들의 고향을 빨아내는 횡포를 폭로한 작품이다. 다분히 현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이 세 작품은 현실 비판의 성격을 띤 대표적인 서민가사라는 공통점 외에도 현실 모순의 해결을 임금 또는 관료들의 선정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서민의 입장에서 는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태평했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게 임금과 관료들이 선정을 베푸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임금은 백성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고 관료들도 그런 임금을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백성들은 자신의 신분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 모든 현실적 모순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Ⅲ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박한 꿈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의식은 이미 신라의 향가에서도 나타나니 그 예를 들어보겠다.

<安民歌>는 경덕왕 24년에 충담사가 지은 향가이다. 경덕왕은 나라에 천재지변과 함께 상서로운 조짐이 일어나자 충담사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명했고 이에 충담사가 <安民歌>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이 당시 충담사의 신분은 정권에서는 소외되어 있으면서, 화랑의 전통을 자기대로 있고 미륵을 숭상하는 국선지도에 속한 승려였다.<sup>92)</sup> 당연히 조선 후기 가사의 한 담

91) 金文基, 앞의 책, p134~135

당층이었던 서민과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安民歌>의 아홉 번째 구와 열 번째 구에서 밝힌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 / 爲內戶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sup>93)</sup>라고 하는 의식은 앞서 언급한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띠는 서민가사에 나타난 의식과도 흡사하다. 단적인 예로 기음노래만 보더라도 서민들은 “치치훈 우리들은 홀일이 무어신고 속미와 포루는 고금의 혼법이니 복전 녀식이 이아니 근본인가”라고 하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어진 임금과 관료들이 선정을 베푸다면 태평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대 서민들이 지녔던 소박한 소망이었으며 그러한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작품 속에 잘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 인생을 발견하려 했던 서민들의 낙천적인 미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민가사 중 농부가류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기본 원리인 “垂直的인 人間關係”와 “位階秩序 또는 身分秩序”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작품도 있다.<sup>94)</sup>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며 근검과 절약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농부가>와 <치산가>, <용가>, <명당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농부가류 가사의 화자에게 있어서 현실은 부정적인 공간이 아닌 자신들의 노력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난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헤쳐 나가려고 했다. 이는 비슷한 신분인 <기음노래>와의 화자와는 약간은 다른 모습이다. 그것은 같은 농민이라 할지라도 <농부가>나 <치산가> 등의 작품에 나타나는 화자가 <기음노래>의 화자보다 조금은 나은 생활을 영위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농민층의 분화는 당대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을 살펴보자.

移秧法 은 直播法보다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을 대폭 감소시키게 했고, 따라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土地의 면적을 몇 배씩이나 늘릴 수 있게 하였다. 畝種法도 또한

9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93)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 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 하느니라.”

94) 金文基, 앞의 책, p135

노동력을 대폭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라도 이를 並作하지 않고 自作하는 소위 廣作이 크게 보급되었다. 대체로 廣作하는 농민들은 부농이었으며 …… 廣作은地主層이나 自作農 뿐만이 아니라 小作農들도 하였다. …… 이렇게 廣作을 하는 小作農들도 점차 富를 축적하게 되었고 …… 물론 농민들 중에서는 더욱 零細小作農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賃勞動者나 流民이 되는 자도 많았다.<sup>95)</sup>

이러한 농민층의 분화는 Ⅲ장 현실인식 연구 중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신분 변동향에서 살폈던 양반층의 분화와 더불어 조선 후기에 빠르게 진행되어 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류에 등장하는 화자가 광작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농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는 조선 후기 농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고 이러한 사회 현상이 <농부가>나 <치산가>와 같은 작품 속 화자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서민들의 미의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고찰해보기로 하자.

아마도 이선벽은 스민중 옷들이라  
우리는 글못빅와 범민준슈 못되리니  
차라리 밧출갈아 부모봉양 흐오리라 ……  
엇그제 읍네가니 직상양반 귀양가데  
입신양명 허올적에 그영화 오작혈가  
일조에 죄틀어더 절도에 너치시니  
늡근부모 계시다네 그마음 오작혈가  
오날노 볼작시면 우리를 부러허리  
제부모 섬기기야 귀천이 다를손가  
우리는 농민이라 저런근심 모를거니

조선 후기 서민가사 중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농부가 Ⅱ>의 한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서민의 신분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가 한번쯤 양반의 신분을 부러워했을

95) 李基白, 앞의 책, p269~271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Ⅱ>의 화자는 결코 양반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지 못해 농사짓는 자신의 신세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엇그제 읍내에 갔다가 귀양 가는 재상네를 보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자신이 농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현실 안에서 큰 욕심 없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 했기 때문이다. 다른 대목을 더 살펴보자.

밭기슭 너른곳에 집즈리 널게페소  
 김싱원임 좌정호오 동무임네 다오시오  
 서편작 판즈리에 녀주임네 안즈시오  
 되게거른 조흔술을 서산사밭에 가득부어  
 슬컷쌀 먹은후에 오날일 심씨허세  
 시장이 직출혈제 술잔보니 우음난다  
 두세잔 겨우룬후 곱방딤 푸여물고  
 그만허여 이러나쇼 일즉맛고 쉬여보세 ……  
 방아다리 아즈머니 선소리나 너여보소  
 초성조흔 목소리에 산유화로 화담흐니  
 듯기조흔 썬일넛가 이소리에 일벗는다  
 신명저운 돌진이에 입방귀로 장단치구  
 좃구진 금네자친 궁둥춤이 불만흐다 ……  
 가을보리 푸진밥에 격두팻시 조홀시고  
 원충국 초맛초타 먹을시록 슬치안하  
 아욱국에 토막자반 향촌엄식 좃타헌들  
 이에서 더혈손나 ……  
 곡식이 제여무니 쭉정이 바이업쇼  
 오류석 나든즈리 여덜섬이 되여구나

고된 일을 하다가 잠시 쉴 틈을 내어 마시는 술 한 사발에 그 고됨을 잊고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며 일 자체를 즐긴다. 그리고 비록 보리밥에 보잘 것 없는 반찬이지만 향촌의 음식보다 더욱 뛰어나다 여기며 먹는다. 그렇게 하여 추수 시기가 돌아

오니 풍년이라 이에 또 기뻐한다.

<농부가 Ⅱ>의 화자는 비록 가난하지만 安分知足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서민이 지어 향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시조에서도 드러나니 한 작품을 예로 들어보겠다.

논밭 가라 기음 띠고 뵈잠방이 다임쳐 신들 메고

낮 가라 허리에 찌고 도의 버려 두러메고 茂林山中 드러가서 삭싸리 마른 접흙 뷔거니 버히 거니 지게에 질며 집광이 맞쳐노코 식음을 츠즈가서 點心도습 부시이고 곱방딤를 툫툫 썰러 님담빅 휘여물고 코노리 조오다가

夕陽이 지너머갈제 엇씨를 추이르며 긴소리 저른소리흐며 어이갈고 흥노라<sup>96)</sup>

위의 사설시조는 평범한 농민의 전형적인 하루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 작품에서도 <농부가 Ⅱ>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큰 걱정이나 불만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安分知足하는 삶의 모습은 양반 문학에서도 나타나는 미의식이다. 그러나 양반 문학에서의 安分知足은 서민 문학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을 살펴보자.

보리밥 꽃노물을 알마초 머근후에

바회긋 몫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줄이 이시라 <漫興 2>

위 작품은 <산중신곡> 중의 <만흥> 둘째 수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연 관조를 통하여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sup>97)</sup> <농부가 Ⅱ>에서 드러난 安分知足의 삶의 모습이 위 작품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위 작품에서 화자가 속해있는 공간은 화자의 현실적인 생활공간은 아니다. 단순히 속세를 떠나 자연을 통해 흥을 취할 수 있는 유흥공간인 것이다. 이 점에서 <농부

96) 金濟鉉 編著, 『辭說時調 全集』, 永言文化社, 1985

97) 元容文, 『尹善道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2, p109~110

가 Ⅱ>의 화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농부가 Ⅱ>에서 화자가 있는 공간은 양반 문학의 그것처럼 흥을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부가 Ⅱ>에 나타나는 安分知足은 양반 문학의 그것에 비해 좀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

따라서 큰 욕심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즐기려는 서민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서민들의 낙천적인 가치관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미의식의 표현이다.

다음으로 <치산가>는 <농부가 Ⅱ>와 비슷한 농부가류에 속하는 서민가사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농부가 Ⅱ>가 현실에 충실하며 安分知足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치산가>는 安分知足보다는 근검절약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검불 치지말고 거름으로 가게허소  
조석으로 지름모아 룡스씨를 싱각허소  
뒤간의 물을다라 그아니 부술인가  
오좁똥을 한테모면 옷밥이 예셔는다  
슈족이 희디허면 지름이 어이나리 ……  
벽송정 룡부드라 사풍세우 낮좁마라  
썩달나서 못허느니 치운겨울 어이흐고  
슈족이 한가허면 입조차 편허리라  
남부다 문져허면 룡스장원 아니런가 ……  
가을에 손이크면 봄비를 엇지허리  
쥬먹이고 식먹이니 즈조덥고 치여눗소  
늦게즈고 일즉일면 도격도 못오나니  
불켜눗코 즈지마소 등잔밧히 귀신잇너  
썰데업느 스설말고 질습이나 위업허쇼 ……  
세간은 늘지라도 스치는 허지마소  
스치허고 범연허면 턴즈라도 암허리니  
허물며 범인이야 다시일너 못엇허나

농부들의 꿈이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풍년이 되게 하고 그리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처,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기 위해서 <치산가>의 화자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집안 살림살이를 잘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산가>의 화자 역시 현실을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앞의 <농부가 II>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서민의 낙천적인 의식의 반영이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의식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상 개별적인 작품들을 통해 ‘소망의 반영과 긍정적 인생’이라는 미의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서민들의 이러한 미의식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던 실학 정신과 결부되어 조선 후기 서민가사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망의 반영과 긍정적 인생’이라고 하는 미의식은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서민들의 미의식 중 대표적인 하나가 될 것이다.

## 2. 웃음의 여유와 고난 극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조선 후기 서민가사 작품들 중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희극적인 요소는 작품 내용 자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용 자체는 슬프고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그러한 내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기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유교적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나타난다. 즉 실제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던 소재 예컨대 남녀 간의 노골적 사랑이야기라든가 세태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현실에서 행하지 못하고 언급하지 못하는 것들을 문학을 통해 나타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고 웃음을 자아내게 된다. 이는 조선 후기 서민 문학이 지니는 특징이기에 서민가사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후자의 경우는 슬프고 어두운 내용을 다루면서도 인물을 희화화 시킨다든가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풍자를 통해서 웃음을 획득한다.

이처럼 문학을 통하여 웃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낙천적인 기질의 반영 때문이기도 하고 문학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만이라도 시원하게 웃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려 했던 서민의식의 반영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학 속에 드러나는 웃음만을 놓고 서민가사의 미의식으로 보기는 힘들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대부 시가에서는 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사대부 시가에 나타나는 興과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웃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상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잠시 고산의 시조를 살펴보자.

잔들고 혼자 안자 먼 뉘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몰내 도하 흐노라 (漫興 3)<sup>98)</sup>

고산은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그 때문에 자연과 같이 생활할 시간이 많았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있어 생활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고산은 자연 그 자체에서 興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다.<sup>99)</sup>

그러나 이러한 興과 즐거움은 조선 후기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서민의 웃음처럼 현실을 개척하기 위한 웃음도 아니요,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의도적인 웃음도 아니다. 결국 사대부 시가에 나타나는 웃음과 서민가사의 웃음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웃음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려 하는 의식의 표출을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하나의 미적 범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제 <노처녀가 Ⅱ>와 <용부가>, <거사가>의 세 작품을 살펴보자.

<노처녀가 Ⅱ>나 <용부가>, <거사가>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장치는 인물의 희화화

98) 文永午, 「尹善道 論」, 『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편, 박산출판사, 1986

99)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410 "그러나 막상 山水間에 은둔하여 이상 생활을 실현하게 되자, 그 생활환경으로서의 자연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無用의 有用이며 無爲의 自然인 것이다. 그래서 고산은 산수 경물을 더욱 사랑하고 점점 자연에 몰입하게 된다.

이다. 즉 인물의 모습이나 행위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물의 희화화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도록 하겠다.

<노처녀가 Ⅱ>에 등장하는 화자인 노처녀는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아닌 몸 전체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흐편눈이 머러시나 흐편눈은 밝아잇너 ……  
귀떡다 누무러나 크게흐면 아라듯고 ……  
오른손으로 밥먹으니 왼손혀여 무엇홀고  
왼편다리 병신이나 뒤간출납 능히호고  
코구멍이 퉁퉁하나 너음시는 일슈만네  
넙시올이 푸르기는 연지빗홀 발나보시  
영덩씨가 너르기는 희산잘홀 장본이오  
가슴이 뒤앗기는 준일잘홀 괴골일시  
턱아리 거문혹은 츠어보면 귀격이요  
목이비록 움쳐시나 만져보면 업슬손가

<노처녀가 Ⅱ>의 화자인 노처녀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거쳐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어디하나 결함이 없는 곳이 없다.

이럴 정도로 열등한 인물이지만 자신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대목에서 웃음을 주는 요소는 과장된 표현이다.

<노처녀가 Ⅱ>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노처녀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그야말로目不忍見이다. 그런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나친 과장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지나친 과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처녀가 Ⅱ>의 결말에서 보면 결국 노처녀는 혼례에 성공한다. 따라서 노처녀가 혼례를 치르지 못 했던 원인을 신체적 결함에 두기 위해서 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과장의 이유는 다름 아닌 웃음이다. 잘못된 일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노처녀가 Ⅱ>의 노처녀를 상상해 보면 안됐다는 생각 이전에 웃음이 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지나친 과장의 효과인 것이다. 봉산탈

춤 제 6과장 양반춤에서 생원님이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이 언청이 한 줄, 도련님의 입이 삐뚤어져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 하겠다.

이 대목에서 웃음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허남춘은 “일상적인 사람에 비해 지독히 열등한 인물이 정상적인 인간 대접을 요구하며 자신의 열등함을 부인하는 가운데, 어릿 광대의 웃음을 느끼게 한다.”<sup>100)</sup>고 하였다.

한편 노처녀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녀의 언행에서도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 다시 몇 대목을 살펴보자.

ㄱ) 님본시 총명키로 무슨노릇 못홀소냐  
기억즈 나나즈를 십년만의 썩쳐너니 ……  
중인이 모힌곳의 방귀똥여 본일업고  
밥주걱 업허눗와 니를죽여 본일업너  
장독소리 벗겨너여 뒤물그릇 혼일업고  
양치티를 집어너여 쉼묵하여 본일업너

ㄴ) 삼살기 귀의되고 넌지시 니른말이  
나도이제 시집간다  
내가너썩 썩던날의 원슈갓치 보와더니  
오늘이야 너를보니 니별홀날 머지안코  
밥줄사람 나썩이라

ㄱ)은 노처녀가 자신을 자랑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랑에 앞서 자신은 본래 총명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독자들은 비록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음 대목을 보게 된다.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 노처녀의 자랑을 보면 누구나가 당연히 하고 있는 일들이다.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도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독자는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웃음을 짓는 것이다.

ㄴ)은 노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집에서 기르던 개의 귀에 대

100) 허남춘, 「조선 후기 시가의 전개와 미의식」,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月印, 1999, p324

고 자신은 이제 시집을 간다고 자랑하는 대목이다. 독자는 이 대목에서 오죽이나 기뻐하면 저러할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노처녀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웃음 짓는다.

이처럼 <노처녀가 II>에서는 인물 묘사와 인물의 언행 표현을 통해 웃음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용부가>를 고찰해보자.

<용부가>에 등장하는 ‘저 婦人’과 ‘뺨덕 어미’와 같은 인물은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앞서 잠시 언급했던 칠거지악을 행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된다. 그리하여 IV장에서는 두 주인공을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부터는 두 주인공을 통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음을 살펴보자.

시집간지 석달만의 시집소리 심허다고  
친정의 편지흐며 식집흠을 줘아너며 ……  
식부모가 경계허면 말한마디 지지안코  
남편이 걱정허면 뒷바다 맞넉슈요 ……



위 인용문에서 보여지는 주인공의 행위 자체는 유교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는 서민층 부녀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한번쯤 마음속으로 품었던 생각일 것이다. 즉 현실에서는 실제로 시집의 흠을 본다든가 시부모에게 대든다든가 남편에게 말대꾸하는 행위를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마음속에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용부가> 두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행한 행위는 독자들에게 일종의 동병상련이자 대리만족이 될 수 있다. 결국 <용부가>에 등장하는 ‘저 婦人’과 ‘뺨덕 어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흠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띄게 만든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을 살펴보자

고추당추 맵다헤고 시집살이 더맵더라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뽀족새요

시아지비 뽀중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자식하난 우는새요 나하나만 썩는셀세

위 인용문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전해오는 <시집살이 노래>의 일부이다. 이 노래의 화자는 친정에 와서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토로하고 시집 식구들의 흥을 본다. <용부가>의 주인공들과 비슷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 노래의 화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서민들은 화자를 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노래를 들으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집 식구들을 흥보는 대목에서 대리만족에 의한 웃음을 웃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용부가>에서도 앞의 <노처녀가>처럼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 웃음으로써 고단한 현실을 헤쳐 나가려 했던 서민들의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사가>는 지은이와 때를 알 수 없는 조선 시대의 가사로 산중에 살던 어떤 거사가 미인을 만나 계율을 파괴하는 행위를 읊은 서민가사이다. 가사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반부는 깊은 산중에서 홀로 수도하고 있던 거사가 과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는 내용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중반부는 과부가 거사에게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사히 이 산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후반부는 각시의 하소연도 들은 체 만 체 과부와 하산하여 백년해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사가>에서는 산에서 만난 여인에 혹하여 불교의 계율을 파괴하는 중의 행위를 통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다음을 살펴보자.

ㄱ) 용모거동 브라브니 빅틱천염 가즐시고  
팔즈춘산 그린눈썹 초싱반월 아니신가 ……  
반갑기도 썩이엿고 깃브기도 측량엿다  
이내몸 거스되여 세상공명 흐직흐고  
태산을 의지하여 우락을 몰낫더니  
산중에 도를닥가 이각시를 맞나서라

귀신이 도으시고 신령이 도으신가

- ㄴ) 빅팔넝주 목탁깅증 부테넝의 드리리라  
산신넝께 표빅호고 부테넝의 하직호후  
나넝간다 나넝간다 산아릭로 나넝간다  
나넝슬타 나넝슬타 가스발랑 나넝실타<sup>101)</sup>

ㄱ)은 산 중에 있던 거사가 죽은 남편의 묘지 이장을 위해 산으로 들어온 한 여인에게 한 눈에 반해 그 여인의 미모를 찬양하고 귀신과 신령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는 장면이다. 그리고 ㄴ)은 여인에게 반한 거사가 염주와 목탁을 내팽개치고 속세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불교에 심취해 있는 독자가 이 글을 본다면 당장 태워버릴 수도 있을 대목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서민의 경우 종교에 심취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거사가>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서민의 상황을 김학성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거사가>에서는 염불공덕이나 불도에의 정진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거사의 행위, 즉 亡夫의 묘지 이장을 위해 산중에 들어온 젊은 과부의 어여쁜 자태를 보자마자 愛慾이 발동하여 염불 수도를 즉각 포기하고 목탁과 가사를 내팽개친 채 하산해서 그 여인과 더불어 현세의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곧 현세적 가치를 내세워 가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민적 사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거사가>는 불교적인 가치관의 신성성을 훼손하고 그 반대 가치인 세속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서민층의 삶에 있어서 불교의 내세주의가 더 이상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한다 하겠다.<sup>102)</sup>

서민들은 종교적인 가치관 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욱 중요시 했는데 현실은 그런 종교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한 거사가 불교의 계율을 파괴하는 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파계의 행동을 통하여 불교의 숭고한 측면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세에서의 삶보다 내세적인 삶을 강조

101) 金東旭·林基中, (校合)樂府, 서울대학교, 1982

102) 金學成, 앞의 책, p219

해왔던 종교의 모습을 풍자하게 되고 이에 현실을 중요시 여기던 서민들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노처녀가 Ⅱ>, <용부가>, <거사가>를 통하여 조선 후기 서민가사의 미적 범주 중 하나인 ‘웃음의 여유와 고난의 극복’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노처녀가 Ⅱ>, <용부가>, <거사가>는 각각의 인물들의 모습과 언행을 통해 웃음을 준다. 그리하여 서민들은 이런 작품을 읽으며 웃을 수 있었고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에 이는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서민들의 미의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3. 새로운 경제관념과 삶의 이상

조선 후기 실학의 발전은 조선 전기에 경시되었던 상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의 성장은 연쇄적으로 상업의 바탕이 되는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태동이 보인다. 다음을 살펴보자.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빗하오?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위의 인용문은 봉산탈춤 제 6과장 양반춤의 마지막 대목이다. 취발이를 잡아 대령하라는 양반들의 명을 받은 말뚝이가 취발이를 잡아오고 양반들은 다시 말뚝이에게 취발이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에 말뚝이는 취발이를 죽여서 뭐 하겠느냐며 차라리 돈 풀이나 뜯어낸 후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양반들의 추락한 권위와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라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태동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사회로 오면서 명분뿐인 권위나 권세보다는 실질적인 자본의 중요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변해 간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빚을 놓은 이익은 크다. 그 리의 리와息的息을 계산해 보면, 온 나라의 富에 이른다 해도 될 것이다. 때문에 혹은 土地와 家屋을 팔아 빚을 놓는 자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빚을 주는 자도 있다. 이것은 그 의도가 장차 그 리를 취하되 그 수를 많게 해서 사고 값으려는 것이다. 또 典當을 놓을 때 보증인이 있으면 떼일 염려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하의 일이 모두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물며 빚의 이자는 10분의 1이 되니, 10달이면 본전과 이자가 같아지고, 본전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할 수 없게 된다.<sup>103)</sup>

앞서 봉산탈춤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경제관념의 변화는 실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위 인용문은 현실 생활에서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황했던 고리대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새로운 경제관념으로 인하여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누구나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고리대업에 손을 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재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고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물 또는 자본을 중요시 여기는 경제관념은 <우부가>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음을 살펴보자.

전답파라 변돈주기 종을파라 월슈주기  
구목버혀 장스허기 셔척파라 빚주기와 ……  
전당줍고 세간헛기 계집문서 종습기와  
살결박에 소헛기와 불호령에 솟헛기와 ……  
가장을 다파라도 상팔십이 너팔즈라  
중손평계 위전파라 투전질이 싱이로다  
체스평계 체기파라 관즈구설 이러는다

위의 인용문은 <우부가>에서 개똥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벌인 행위들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개똥이의 행위는 논과 밭, 종을 팔아 번 돈으로 고리대하기, 선산의 나무를 팔아 장사하기, 책을 팔아 빚 주기, 전당을 잡아 세간을 뺏고 계집 문서로 종을 삼으

103) 尹楮, 「家禁」, 『無名子集』, 成大 大東文化研究所, p446(姜明官, 「愚夫歌 研究」, 『韓國歌辭文學研究』, p476 재인용)

며, 종손이라고 핑계하여 문중의 땅을 팔아버리고 제사를 핑계하며 제기를 팔아버리는 등 도저히 양반이 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실학의 영향을 받은 서민들은 재물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경제관념을 갖고 있었고 양반이라고 하는 명분보다는 삶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였기에 재물을 얻기 위해 양반의 체면과 권위를 버린 개똥이의 행위는 그리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살펴보자.

개똥이가 전답, 중, 구목, 서책, 祭器를 판 것을 비난한 것인데, 이는 양반의 사고 방식으로 볼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나 개똥이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양반들은 명분과 체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목숨보다 귀할지 모르나 개똥이에게는 목숨을 지탱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답이나 제기 같은 것을 파는 것이 나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체면은 차려야 한다는 것도 양반들의 생활 규범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전답과 제기를 팔 지경에 놓인 개똥이에게는 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104)</sup>

먹고 사는 문제가 양반의 체면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인 재물이 양반의 체면보다 앞선다고 하는 새로운 경제관념인 셈이다.

이러한 경제관념의 변화는 서민층에서 활발히 일어나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갔으나 사대부계층에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뎠다. 실제로 실학 사상가였던 박지원은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이 양반임으로 인해서 신분제도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허생전>에서 박지원은 자급자족하는 조선의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허생을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여 장사를 하고 큰 이윤을 남긴다. 그만큼 상업 또는 경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재물을 재앙으로 보면서 결코 재물은 道를 살찌울 수 없다고 하며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특히 상인 계층을 장사꾼이라고 호칭하며 신분 계급적인 한계까지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차용주는 이것이 연암 자신이 실학의 이론적 공헌만을 사명으로 하고 그 의식 속에는 상업에 대한 천시관념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생긴 모순임을 지적하고 있다.<sup>105)</sup>

---

104) 金文基, 앞의 책, p81

이처럼 박지원은 비록 실학 사상가였지만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경제관념을 대함에 있어서는 부정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우부가>에 표현된 새로운 경제관념과 삶의 이상 변화는 조선 후기 서민 문학에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서민 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실학의 발전과 더불어 재물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을 보이게 하는 서민들의 이러한 의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결국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서민들의 미의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105) 차용주, 「허생전의 모순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 『연암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4, p365 (金明順, 「연암소설의 비극성 - <허생전>을 중심으로」, 『朝鮮朝 後期 文學과 實學 思想』, 정음사, 1988, p137 재인용)

## V. 결론

이 연구는 서민가사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선 작업으로 서민가사의 현실인식과 윤리의식, 미의식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장에서는 조선 시대 신분제도에서의 서민과 서민가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중 양인은 다시 양반과 중인, 상민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상민과 천인을 묶어 서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계층인 양반에 비하여 이들은 생산계층에 속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학 담당층으로서 서민을 논함에 있어서는 중인이라는 신분이 포함되야 할 것이다. 이는 상민이나 천인이 그들이 가지는 신분상의 한계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학을 창작할 수 있을 만한 지식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자층의 문제로 인하여 서민가사라는 장르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분분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김문기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서민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서민적 사고와 관련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기음노래>, <갑민가>, <우부가>, <노처녀가 I>, <과부가>를 통해 서민들의 현실인식을 실학정신과 관련시켜 고찰해보았다.

<기음노래>와 <갑민가>는 작품 속 화자의 신분 계층적 갈등과 삶의 질곡을 잘 표현하고 있다. <기음노래>와 <갑민가>의 화자는 三政의 문란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기음노래>와 <갑민가> 속 두 화자들은 당장 자신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 뒤에는 임금께서 선정을 베풀어 그 덕을 얻었으면 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서민들의 현실인식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민들의 현실인식의 한계라기보다는 서민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부가>를 통해서도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신분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부가>에 등장하는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은 모두가 양반 신분이다. 그러나 이들

은 결국 철저히 몰락하는데 그 원인은 그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그들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노름, 투전질, 주색잡기 등의 소비적인 활동만을 일삼는다.

이처럼 소비적 활동 일색이었던 당시 양반들의 경제 활동과 이로 인한 신분의 몰락을 <우부가>는 잘 표현하고 있다.

<노처녀가 I>과 <과부가>에는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서민 의식의 성장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조선 전기 전형적인 여성상은 부모 또는 남성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노처녀가 I>, <과부가>에 나타나는 여성 화자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시대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현실인식을 살필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서민가사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사회윤리 의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용부가>나 <白髮歌>에 나타나는 비판의 모습은 다른 현실 비판류 가사와는 다르다. <용부가>와 <白髮歌>에 나타나는 비판은 지배 계층이나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부가>에서는 ‘저 婦人’과 ‘뺨덕 어미’의 악행을 통해 스스로 경계하고 자성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한편 <白髮歌>에서는 인생의 노년기에 서서 자신의 방탕했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는 老翁의 모습을 통해 서민들의 자성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와 이를 통하여 경계를 삼고자 했던 서민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노처녀가 II>와 <양신화답가>에는 조선 시대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자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노처녀가 II>의 노처녀는 처음에는 전형적인 조선 여인의 모습을 보인다가 중반부에 오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통해 혼인에 성공하게 된다.

<양신화답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를 넘 앞에서 당당히 드러낸다. <양신화답가>의 여성 화자가 이렇듯 당당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서민가사에는 남녀 간의 관능적인 쾌락을 다룬 작품들이 많다.

<단장이별곡 II>는 사별한 님을 꿈에서 다시 만나 관능적인 사랑을 나누는 내용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섬가>에도 역시 남녀 간의 관능적인 쾌락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한무제가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여 꿈 속에서나마 만나보다가 현실에서 죽은 부인의 형상을 만들어 관능적인 사랑을 나누는 대목에서는 투기 금지라고 하는 조선 시대의 인습을 타파하려는 모습도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서민가사에 나타나는 미의식을 고찰하였다.

흔히 서민가사의 특징을 거론할 때 언급되는 것이 현실 부정과 비판적 성격이다. III장 현실인식 연구 중 ‘신분 계층적 갈등과 현실인식’ 항에서 언급했던 <기움노래>나 <갑민가>와 같은 작품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소박하나마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합강정가>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다음 <농부가 II>에 등장하는 화자는 현실에서 安分知足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치산가>에서는 근검절약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농부가 II>나 <치산가>의 화자에게 있어서도 현실은 결코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처럼 많은 서민가사 작품이 서민들의 긍정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의식의 표출이다.

조선 후기 서민가사 중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들이 있다.

<노처녀가 II>에서는 화자의 외양 묘사와 언행 표현을 통하여 웃음을 준다. <노처녀가 II>에 묘사된 노처녀의 모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인물로 비춰져 지나친 과장에 의하여 웃음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언행 또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또 한 번의 웃음을 던져준다.

<용부가>에 등장하는 ‘저 婦人’과 ‘뺑덕 어미’는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七去之惡을 모두 행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을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비난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용부가>에 등장하는 ‘저 婦人’과 ‘뺑덕 어미’의 행위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웃음을 띠게 만든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동병상련과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웃음 짓게 되는 것이다.

<거사가>는 산중에서 홀로 수도하고 있던 거사가 아름다운 과부를 만나 계율을 파괴하는 행위를 읊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거사의 행동을 통해 종교계를

풍자하니 서민들은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웃음의 여유와 고난 극복이 서민가사에 미의식으로 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부가>에서는 조선 후기에 발전한 실학의 영향으로 나타난 서민들의 삶의 이상 변화와 새로운 경제관념이 미의식으로 표출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양반의 권위와 권세는 공허한 명분에 불과했다. 따라서 양반의 권위와 권세는 더 이상 서민들의 이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모습은 <우부가>의 등장인물인 개똥이가 양반의 상징이랄 수 있는 토지, 구묵, 서책 따위 등의 팔아 고리대업에 손을 대는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서민가사의 현실인식과 윤리의식, 미의식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주지할 것은 이 연구에서 언급한 작품 외에도 많은 서민가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가사만이 가지는 특징이나 문학사적 의의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민가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서민가사의 장르 규명 문제이며, 서민적 의식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짐하며, 미숙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윤덕진, 『가사읽기』, 태학사, 1999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연구사』, 이회문화사, 1998  
고정옥, 김삼불 주해, 『가사집』, 여강출판사, 1991  
金濟鉉 編著, 『辭說時調 全集』, 永言文化社, 1985  
金東旭, 林基中, 『(校合) 樂府』, 서울대학교, 1982  
金思燁 外, 『조선민요집성』, 正音社, 1947

### 2. 단행본

- 김은희, 『조선후기 가창문학의 존재양상』, 보고사, 2005  
정기철, 『고전시가 퍼 올리기』, 역락, 200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3, 4』, 지식산업사, 2005  
-----, 『한국사상사대계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金學成,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 『國文學의 探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 『韓國 古典詩歌의 研究』, 圓光大學校出版局, 1985  
성무경,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문화 담론 탐색』, 보고사, 2004  
-----, 『가사의 시학과 장르 실현』, 보고사, 2000  
류연석, 『가사 문학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서영숙, 『조선 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임기중, 『한국고전문학과 세계 인식』, 역락, 2003  
작가문화, 『가사』, 작가문화, 2003

- 金正桂, 『改訂版 詩歌文學研究』, 朝鮮大學校出版府, 2001
-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 『山水美學探究』,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 반교어문학회 편,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보고사, 1999
-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의 구도』, 소명, 1998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1998
- 鄭在皓, 『韓國歌辭文學研究』, 태학사, 1996
- , 『註解 草堂問答歌』, 박이정, 1996
- , 『韓國歌辭文學論』, 집문당, 1982
- 강동엽 外, 『한국의 고전문학』, 청문각, 1995
- 金承璨 外, 『韓國文學概論』, 삼지사, 1995
- 徐元燮, 『韓國 歌辭의 文學的 研究』,螢雪出版社, 1995
- 安大會, 『朝鮮後期詩話史研究』, 국학자료원, 1995
-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朝閣, 1995
- 조동일 外,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 홍원식 外, 『실학사상과 근대성』,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1993
- 元容文, 『尹善道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2
- 윤석창, 『歌辭文學概論』, 깊은샘, 1991
- 千柄植, 『朝鮮後期 委巷詩社研究』, 국학자료원, 1991
- 전일환, 『朝鮮歌辭文學論』, 啓明出版社, 1990
- 김영수, 『朝鮮朝 後期 詩歌論 研究』, 일지사, 1989
- 國史敎材編纂委員會 編, 『신 한국사개설』, 螢雪出版社, 1988
-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堂, 1988
- 崔珍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 이가원, 『(評論)歌辭文學』, 瑞音出版社, 1985
- 전형대 外, 『한국고전시학사』, 弘盛社, 1985
- 金文基, 『庶民歌辭研究』, 螢雪出版社, 1983

金烈圭 外 編,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82

黃涓江 外,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李能雨, 『가사 文學論』, 一志社, 1977

이동영, 『歌辭文學論考』, 螢雪出版社, 1977

정병욱, 『韓國古典詩歌論』, 신구문화사, 1977

### 3. 참고 논문

#### - 일반 논문

김용찬, 「〈갑민가〉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재검토」, 『조선 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보고서, 2002

-----,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지형도』, 보고서, 2002

손오규, 「歌辭의 문학교과지도 視點 ; 상춘곡, 사미인곡, 우부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15집』, 백록어문학회, 1999

허남춘, 「조선 후기 시가의 전개와 미의식」,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月印, 1999

김대행, 「가사 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3집』, 태학사, 1998

姜明官, 「우부가 연구」, 『韓國歌辭文學研究』, 태학사, 1996

김일렬, 「갑민가의 성격과 가치」, 『한국 고전시가 작품론 2』, 白影 鄭炳旭 先生 10週年 追慕論文集 刊行委員會, 1992

고순희, 「갑민가의 작가의식 - 대화체와 생애수용의 의의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9

金明順, 「연암 소설의 비극성 - 〈허생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16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 金相洪, 「實學派의 文學觀 一斑」, 『朝鮮後期文化 - 實學部門』,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 研究所, 1988
- 金泳鎬, 「實學에 있어서의 ‘民’概念의 새로운 展開」, 『朝鮮後期文化 - 實學部門』,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 研究所, 1988
- 윤석산, 「平民歌辭研究 - 作者層을 중심으로」, 『한국학 논집 16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 文永午, 「尹善道 論」, 『고시조 작가론』, 한국시조학회 편, 박산출판사, 1986
- 차용주, 「허생전의 모순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 『연암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 權寧徹, 「閨房歌詞 研究」, 『효성여대 논문집 14집』, 1975

#### - 학위 논문

- 강경호, 「서민가사의 실체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정인숙, 「歌辭에 나타난 詩的 話者の 목소리 연구: 戀君歌辭와 愛情歌辭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1
- 권정은, 「여성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윤미선, 「조선 후기 서민화 지향 가사의 운율적 변주와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6
- 崔顯載, 「朝鮮後期 敘事歌辭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이동준, 「愚夫歌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93
-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0
- 류연석, 「歌辭文學의 歷史的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정봉기, 「朝鮮後期歌辭에 나타난 民衆意識에 對한 考察」,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1985
- 김문환, 「朝鮮後期歌辭研究」,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84

<ABSTRACT>

**A Study on Seomin-Gasa in the Late Chosun Dynasty**

**Yang Su-Cha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The thesis is aimed at identify working classes' sense of reality, ethics, and beauty revealing in Seomin-Gasas in preparation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features of Seomin-Gasas in the late Chosun Dynasty. Existing studies placed too much on Yangban-Gasas. Meanwhile, researches on Seomin-Gasas have increased recently,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diverse arguments on concept-establishing, classification and author class of those Gasas. As a result, only several works, such as, <Woobuga> or <Yongbuga>, have been taught in eve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where systematic learning of a Gasa is required.

To solve those problems, it needs to be explored common characteristics of each Gasa work: <Giumnoraе>, <Gapminga>, <Woobuga>, <Nocheonyeoga I, II>, <Gwabuga>, <Yongbuga>, <Baekbalga>, <Yangsinhwadapga>, <Oseomga>, <Danjangyibyelogok II>, <Hapgangjeongga>, <Nongbuga II>, <Chisanga>, and <Geosanga>.

Most of all, Concept of a Seomin-Gasa have to be clarified . There can be a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a Seomin who composed and enjoyed Gasas,

and that of a Seomin as social position. Otherwise, Seomin class, most of whom were unable to become knowledgeable, might have not enjoyed their own literature. Though the clarification of the both concepts and the review of the existing research history, the optimal concept of a Seomin-Gasa is determined.

Secondly, Seomin's recognition of reality is considered on the basis of Silhak. Once been a moral support of the first term of Chosun Dynasty, Seongrihak faded its fundamental purpose and degraded into an instrumental studies before or after the Japanese Invasion(1596). It also showed its limitation of overcoming the external and internal crisis of the dynasty. Necessarily, Silhak, practical studies, appeared as a alternative. In the beginning, it was greatly affected by its predecessor. Nevertheless, its realistic and practical aspects corresponding to the senses of Seomins who stressed prosperity in real life, influenced their consciousness.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Seomin literature in the late dynasty, including Seomin-Gasas, was influenced by the studie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Seomin's recognition of reality, based on Silhak in order to identify the features of a Seomin-Gasa.

Thirdly, Seomin's sense of ethics is explored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in Gasa works. Since the invasion of Japan and the Qing dynasty. the period when a Gasa was created had been chaotic. While Seongrihak, the dominant value system began to collapse, Silhak's influence over Seomins gradually increased. Consequently their consciousness grew up more than the former times. Now they didn't restrict themselves to any formal value system, thanks to self-reflection, enlightenment, pursuit of humanity, and destruction of convention. They rather attempted to recover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social morality. As their lives are reflected in the characters of the works mentioned previously, their social ethics can b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characters.

Finally, aesthetic consciousness revealing in Seomin-Gasas is identified. The concept of 'beauty' in aesthetic consciousnes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daily

life. The latter is up to individual's values. The former is not a separate sense of a person, but an aesthetic experience related to the whole life. Therefore, Seomins' aesthetic recognition is distinct from that of Yangbans. This is a unique feature of a Seomin-Gasa.

This thesis needs to be complemented in terms of genre classification and a concrete approach to each work. Despite its insufficiencies, it can serve as a foundation to clarify the features of a Seomin-Gasa on the assumption of its additional complement and continuous discussion. It can also be used as a material for the research of each work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